

작가노트

'받아들임(수용)'의 한 과정으로서 내적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개인적 목표는 작업을 통한 내면의 발산과 다짐이었으나, 작품을 통해 나의 내면을 완성해 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공유하고 공감하려 한다.

나는 작품을 통해 내적 경험을 표현하면서 내면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받아들임(수용)'을 실천하고자 한다. 어떤 감정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등을 알아차리고 언어화하는 '관찰하기' 과정을 작업 과정으로 대체한다.

하나의 회화를 '나' 자신이라 한다면, 지지체는 나의 마음이 되고 굵개나 붓질 등은 이미지화된 나의 내면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것으로 나의 감각이나 감정, 불안정함 등이 표현되어, 나는 작품을 통해 나의 내면을 시각화한다. '관찰하기'의 언어화 과정을 시각화로 대체하여, 나는 시각화된 작품을 경험하면서 나의 내적 경험을 알아차린다. 이러한 '관찰하기' 과정을 통해 '받아들임'에 가까워져 간다.

작가 본인이 겪었던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법에 기초한 심리치료** 과정을, 이러한 작업으로 가져와 작가 자신의 치유뿐 아니라 관객의 평안을 기원하는 바람을 담는다. 관객은 작품을 통해 명상할 수 있고 작품을 체화하며 깊이 있는 내적 경험을 한다. 일종의 심리치료 혹은 '받아들임'을 향해 가는 수행(修行)으로서 작업을 시도하고, 나와 타인의 치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을 완성하고자 한다.

나는 명상, 수행(修行) 또는 심리치료로서 작업한다. 관객 또한 회화로서의 작품 또는 작품으로서의 공간에서 명상할 수 있고 작품을 체화하며 깊이 있는 내적 경험을 한다. 전시된 작품을 작은 요소로 본다면 회화라고 할 수 있으나, 공간 전체를 본다면 설치물이기도 하다. 설치물로서의 회화를 연구하고, 그것을 전시장에 설치해보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 회화적 요소와 설치적 요소를 이용해 공간 전체가 작품이 되는 작업을 완성한다.

이러한 작품 세계로 발전된 과정을, 작업의 집약체인 개인전을 중심으로 설명해보자면,

* 관련 설명: https://www.traumahealingcenter.org:46084/page_iHGG09

	공간적 측면에서	회화적 측면에서
첫 번째 개인전 <알아차림의 체험,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8>	나는 '이우환'의, 작품과 공간 또는 작품과 작품이 서로 관계한다는 작품 세계와, 전시장의 기동을 피하려 하지 않고 작품을 배치했다는 일화에서 영향을 받아 2018년 개인전에서는 전시장 벽에 나란히 있는 문과 대칭으로, 같은 크기의 회화 두 점을 전시했다. 대칭된 공간에서 균형감을 통해 명상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두 점의 회화는 화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칭되는 이미지로 이를 통해 서로 관계하는 느낌을 주었다. '받아들임'에 '관계'라는 의미를 적용해, 관계하며 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확장했다. 또한 '차승언'의 캔버스 프레임을 비치게 한 직조 회화에서 착안하여, 캔버스 프레임에 면포를 씌워 프레임이 비치도록 했다. 나는 프레임이 비치는 회화를 볼 때 통과하는 느낌, 흐르는 느낌을 느꼈다. 이를 '관계(서로 받아들임)'에 적용해 전시장의 회화가 서로 관계한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이후, 프레임의 역할을 발전시켜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역할로서 작품을 이루었다. 수시로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은 불완전하다. '알아차림'의 과정을 통해 불완전함은 닫힌 세계가 아닌 열린 세계가 된다. 무언가가 멈춰서 고여 있는 닫힌 공간에서 틈을 열어 흘려보내는 열린 공간이 된다. 틈을 통해 다른 것이 채워지기도 하고 다른 것과 관계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받아들임'이라 한다면 불완전함은 '알아차림'을 통해 열린 공간이 되고, 열린 공간은 '받아들임'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된다. 작가노트 中	나는 건조된 유채 물감을 볼 때 차분하게 깊어지는 느낌을 느꼈다. 내면에 집중하며 붓(물감을 묻힌 붓이 건조되면서 시간에 따라 붓의 결이 달라지게 함)과 굵개(굵개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 천 표면의 요철을 이용해 굵음)로 표현된 나의 정적이면서도 분산된 내면의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깊고 명상적인 느낌을 주었다. 내면을 표현한 작업을 통해 나는 나의 내면을 알아차리고 관찰한다. 여러 색상을 섞어 내면의 색상과 가장 가까운 색상을 찾는 과정 역시 내면에 집중하고 관찰하게 한다. 깊고 차분한 작품을 경험하면서 관객 또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명상한다. 이런 의미에서 2018년 전시의 경우, 관객이 명상하며 스스로 정의할 수 있도록 회화 작품에 특정 감정이나 내용을 담은 제목을 달지 않고, 작품에 사용된 물감의 색을 적었다. 붓과 굵개가 만들어 낸 우연한 형상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분히 의도적이기도 하다.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솟아오르는 생각과 감정은 온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그것이 곧 도구를 통해 형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표출하는 과정과, 표출된 형상을 체험하는 과정은 '받아들임'의 과정에 들어서게 한다. 도구, 즉 온 몸과 마음에 집중하며 표출하고, 표출된 형상을 체험하는 자체가 '알아차림'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 '받아들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노트 中

	공간적 측면에서	회화적 측면에서
두 번째 개인전 <감싸안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한국, 2020>	2018년 개인전 후에는, 전시장에서 조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회화가 잘 보이도록 비추는 도구를 넘어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작품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의 일부분으로서의 조명을 고민했다. 그 결과, 나는 자연광의 자연스러움과 따뜻함을 떠올릴 때,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드러내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 준다고 생각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받아들이한다는 작품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로서, 자연광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광이 비추는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까지 작품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2020년에 진행한 두 번의 개인전에서는 인공조명이 아닌 전시장의 자연광을 사용하여, 명상적 분위기를 내는 동시에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내용을 살려 관객이 명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개인전 '감싸안기'에서는 자연광이 비추는 공간에서 명상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마치 숲속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추듯 전시장의 천장에서 내려오는 자연광은, 일종의 설치물로서 세워진 회화(숲속에서 있는 나무들, 팔을 벌려 감싸 안는 느낌을 형상화)와 어우러져 차분하고 명상적인 작품으로서의 공간을 연출한다. 2020년 개인전 '관찰하기: 좁고 깊은 터널'에서는 좁고 길쭉하지만 빛이 들어오는 전시장을 활용해 마치 어두운 좁고 깊은 터널에 있는 듯하지만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희망을 상징하면서 명상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2018년 개인전에서 '관계'의 의미로 프레임을 비치게 하기 위해 면포를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이를 발전시켜 '감싸 안는다'는 의미로서 면포를 사용했다. 나는 면포를 볼 때, 면의 질감이나 색상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이 따뜻함은 감싸 안는다는 느낌을 주었다. 또한, 면을 나무틀(캔버스 프레임)에 씌운 형태 역시 면이 틀을 감싸 안는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것을 활용해 나무틀에 면포를 씌워 불완전함을 감싸 안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표면에 오일(린시드유가 건조하면서 황변현상을 일으켜 나무 같은 느낌, 깊은 느낌을 연출한다. 이는 작가 내면의 색상이기도 하고, 명상적 느낌을 주기도 한다.)을 칠해 나무 프레임이 비치게 한다. 또는, 프레임에 씌운 면포에 내면의 이미지, 내면의 불완전함을 흘러보낸 선 등을 표현하여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오브제인 동시에 나의 내면을 관찰하는 회화로서 작업하여 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완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나무틀(캔버스 프레임)은 캔버스의 뼈대를 구성하는 재료로서 캔버스의 뒷면 즉, 안을 이루고 있다. 나는 이것을 보았을 때, 마치 생선살을 발라내고 남은 가시(살 안의 가시) 또는 인간의 엑스레이 사진에 찍힌 뼈(육체 안의 뼈)와 같다는 연상작업을 통해 인간의 내면 속 불완전함을 떠올렸다. 나무틀을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오브제로써 사용하여, 표면에 비친(드러난) 프레임이 마치 내면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를 심화하기 위해, 2018년 개인전에서는 프레임의 이격이 있는 부분에 면포를 씌운 반면 2020년 개인전에서는 프레임의 이격이 없는 부분에 면포를 씌워 프레임의 형태가 더 잘 드러나게 했다.
세 번째 개인전 <관찰하기: 좁고 깊은 터널, CICA 미술관, 김포, 한국, 2020>	틀을 드러내어 불완전함을 드러낸다. 그 안에 '나'를 기록한다. 나의 생각과 감정, 느낌이 캔버스로 전해진다. 마치 좁고 깊은 터널에 갇힌 듯한 오늘의 '나'를 기록한다. 하나의 객체가 된 '나'를 바라본다.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나'를 '관찰'한다. 작가노트 中	통제하지 않는다.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몸을 도구 삼아 내 안에 있는 곧지 않은 선을 캔버스로 흘려보낸다. 불안정한 불완전함이 드러난다. 드러난 불완전함을 감싸 안는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감싸 안은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경계는 우리 자유의 경계다."* 나는 '수용(받아들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유, 곧 경계의 확장을 향해 나아간다. '받아들임'의 한 과정으로서 내적 경험을 표현하고 이 과정을 통해 내면을 완성해 간다. 몸과 캔버스라는 도구를 통해 내면을 표현하고, 표현하는 과정과 이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알아차림'을 경험한다. 동시에 틀을 드러내어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불완전함은 없애야 할 문젯거리가 아닌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나는 불완전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받아들이면서, 나의 존재와 깊은 욕구를 알아차리고 온전한 자유를 발견하려 한다. 작가노트 中 * 타라 브랙, 『받아들임』, 김선주·김정호 옮김 (불광출판사, 2012), p.77 ** 타라 브랙, 『받아들임』, 김선주·김정호 옮김 (불광출판사, 2012), p.45

	공간적 측면에서	회화적 측면에서
네 번째 개인전 <빠를 통과하는 창,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한국, 2023>	네 번째 개인전에서는 관객에게 압도감을 주고자 했다. 압도감을 통해 관객을 집중시키거나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명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전시가 진행된 2개의 전시실은 모두 자연광이 들어온다. 이것을 활용해 모든 전시실에서는 인공조명이 아닌 자연광을 이용하여 전시를 진행했다. 자연광은 있는 그대로 보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자(받아들이고자) 하는 작품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 했다. 그중 하나인 4전시실 벽면에는 아래쪽에 대형 작품을 설치하고 다양한 크기의 여러 회화를 사방에 설치하여 압도감을 주었다. 전시실의 높은 층고 역시 압도감을 주는 동시에, 천장 전체에 가까운 면적에서 내려오는 자연광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었다. 벽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배치한 회화들은 벽에 있는 창문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연상시키고자 했다. <i>빠는 내면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며, 창문은 어떤 것을 열고(통과하여)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창문으로 안이나 밖을 들여다보듯이, 심리치료 기술에 기반한 작품들을 통해 마음을 통과하여 내면의 불완전함, 생각과 느낌, 감정 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i> <i>전시장 곳곳에서 비추는 자연광은,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자 다짐인 ‘받아들임’을 완성하게 한다. 날씨가 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의 양에 따라 전시장은 밝아지고 어두워진다. 조도의 변화는 마음을 관찰하는 시선과 느낌을 변화하게 한다. 집중시키거나 편안함을 주어 명상적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관람객이 회화를 관람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가 작품이 된 공간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받아들임’을 다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i> 작가노트 中 층고가 낮은 사각형의 3전시실에서는 시선을 집중시켜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측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자연광 또한 편안함을 주고 집중도를 높였다. 이 공간을 활용해 3전시실에서는 벽면이 아닌 바닥에 회화들을 설치해 마음을 관찰하는 경험을 시도하고자 했다. 바닥에는 10호 크기의 회화들을 놓았는데, 이는 모내기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시실 바닥에 놓인 회화들은 일종의 설치물로서 작용하여 모내기를 연상시킨다. 10호 크기의 회화 하나가 모판 하나라 한다면, 전시실 바닥에 있는 회화들은 모판이 모여 있는 모습 또는 모내기한 논을 연상시킨다. 내면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10호 크기의 회화들을 전시실에 모내기하여 마음을 관찰하고자 했다. 3전시실 전체를 마음이라 한다면, 전시실 바닥에 모내기 한 회화들은 마음을 관찰하는 창문이 될 것이다. 모내기를 떠올리게 된 과정을 보자면, 모를 심어 벼를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논을 보살핀다. 모내기는 그 시작점이 된다. 농부가 수행(修行)하는 마음으로 모내기를 하여 땅을 비옥하게 하듯, 내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돌보아, 마음을 비옥하게 하려는 나의 작업 과정도 모내기 작업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이것에서 착안하여 마치 모내기 후의 벼가 자라가는 땅처럼, 나의 마음을 땅이라 한다면 나의 마음이 ‘받아들임’의 마음 상태로 비옥해지기까지 그 시작점은 ‘관찰하기’가 될 것이다. <i>가물었던 땅에 물이 채워지고 모가 심긴다.</i> <i>하나의 노동에 불과했던 모내기 행위는 노동자의 정성과 보살핌으로 땅 전체를 비옥하게 한다. 동시에 그때까지의 인내와 깨달음으로 노동자 자신을 온전하게 한다. 노동은 수행의 일부가 되어 노동자를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i> <i>불완전한 나의 마음에도 모내기를 한다면 나의 노동 행위는 사랑과 보살핌, 관찰과 깨달음, 인내와 수용이라는 수행의 길로 향할 것이다. 수행자로서 모를 심으며, 가물었던 땅이 비옥해지듯 불완전한 나의 땅도 온전하게 될 것이라 소망한다.</i> 작가노트 中	

DBT 기술에 기초한 작업 방식을 작품마다 색깔별 점으로 표시했다.

DBT 기술훈련	핵심 마인드풀니스 기술 (마음중심 잡기)	관찰하기●	알아차리기, 테플론 마인드● (느껴지는 모든 경험과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마음 갖기)
		기술하기●	
		참여하기●	몰입하기
		무판단적 마음 갖기	있는 그대로 보기
		한 가지 마음 갖기	한 번에 한 가지씩
		효과적인 것에 집중하기	주어진 순간에 효과적으로 행동
	대인관계 효율성 기술	목적 달성하기, 관계 유지하기, 자존감 유지하기	
	감정조절 기술	감정기술●	사랑,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감, 기타
		긍정적 감정 증진시키기	즐거운 활동하기
			긍정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
			걱정하는 마음이 들면 알아차리고 주의분산하기
		정서적 고통 지나가게 하기	감정을 관찰하기 (알아차리기, 기술하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파도타기)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고통 감내 기술 (현실 수용을 위한 지침)	주의 분산하기●	
		자기 위안하기	오감에 집중, 오감을 편안하게 만들기
		순간을 살리기	고통스러운 순간을 잠시 벗어나기
		숨 관찰하기●	
		살짝 미소 짓기	
		자각하기●	우주와의 연결성 자각하기
		현실 수용의 기본 원리●	철저한 수용, 한계 수용, 허락과 인정, 감내, 받아들이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아들이겠다는 다짐(마음 돌려 잡기), 기꺼이 함

* 참고 도서: 마샤 리네한,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위한 다이어렉티컬 행동치료』, 조용범 옮김 (학지사, 2007)

DBT 기술에 기초한 작업 방식 설명

-관찰하기●기술하기●감정기술●

어떤 감정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등을 알아차리고 언어화하는 ‘관찰·기술하기’ 과정을 작업 과정으로 대체한다. 하나의 회화를 ‘나’ 자신이라 한다면, 지지체는 나의 마음이 되고 굵거나 붓질 등은 이미지화된 나의 내면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것으로 나의 감각이나 감정, 생각이나 다짐, 불안정함 등이 표현되어, 나는 작품을 통해 나의 내면을 시각화한다. ‘관찰·기술하기’의 언어화 과정을 시각화로 대체하여, 나는 시각화된 작품을 경험하면서 나의 내적 경험을 알아차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받아들임(수용)’에 가까워져 간다.

+ 「크랜베리 수확」: 크랜베리를 수확하는 방식 중 하나는, 발에 물을 채운 뒤 물 아래 냉쿨에 달려있던 크랜베리 열매들을 기계로 휘저어 열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건져내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내면을 관찰하는 과정에 비유해 본다면, 크랜베리를 수확하는 것은 찌꺼기 마음을 떠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물 아래 있던 크랜베리는 마음 깊이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이고, 그것을 관찰하기 과정을 통해 보는 것은 물을 기계로 휘저어 열매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빈 캔버스를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마음이라 한다면, 솟 알갱이는 태우고 남은 것, 타고 남은 찌꺼기 즉,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를 상징한다. 한편, 캔버스에 표현된 솟 알갱이들은 물 위로 떠오른 크랜베리처럼 ‘관찰하기’를 통해 마음에 떠오른 찌꺼기들을 나타낸다. 크랜베리 수확처럼 마음 깊이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을 관찰(수면 위로 떠오르게 함)하여 캔버스 위에 표현(캔버스 위로 떠냄)하고자 했다.

-테플론 마인드●

코팅된 프라이팬처럼, 느껴지는 모든 경험과 생각이 코팅된 마음에 왔다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마음 상태를 일컫는 ‘테플론 마인드’에 기초해 작업한다. 나는 코팅된 마음을 생각했을 때 흡수되지 않는 마음을 떠올렸다. ‘흡수되지 않음’에서 연상하여, 어렸을 때 하던 미술 놀이 중에 종이에 양초를 칠하고 물감을 바르면 양초를 바른 부분만 물감이 묻지 않고 하얗게 드러나는 것을 떠올렸다. 이것에서 착안하여 캔버스(마음을 상징)에 촛농을 떨어뜨려 테플론 마인드를 향한 다짐과 기원의 마음을 담는다. 양초는 염원·기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캔버스에 촛농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행위를 통해 테플론 마인드를 향한 바램과 다짐을 담고, 코팅되지 않은 마음을 땀질하듯 한 방울씩 떨어뜨려 나의 불완전한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는다. 그 위에 스포이트로 한 방울씩 물감을 뿌려 흘러내리게 한다. 이것은 마음을 계속 지나가는 각각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상징하여, 마음의 고통을 흘러보내듯 물감을 흘러보낸다. 촛농을 미끄러져 간 물감은 마치 느껴지는 경험이나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가 그대로 사라지듯 흘러가고, 캔버스 또는 촛농에 흡수된 물감은 지나가지 못하고 마음에 흡수된(고인)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한다. 한편, 캔버스에 붙은 수많은 촛농은 마음속 수많은 생각이나 감정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것들이 모여 산만하고 분산된 이미지를 형성하여 마치 불안하고 혼란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듯하다.

-참여하기●

나는 그 순간에 몰입한다는 ‘참여하기’ 훈련을 통해,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했다. 이 훈련을 작업 방식으로 가져와, 작업에 몰입하는 것을 ‘참여하기’ 훈련으로 대체했다. 여러 생각이나 감정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붙잡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로 모아진 작품을 발견하기도 했다. 작업 방식 자체가 ‘참여하기’ 훈련, 즉 ‘몰입’이라 할 수 있고, 표현된 형상들이 내 마음의 상태, 즉 산만한 상태와 집중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흐트러진 상태를 ‘분산’이라 하고 모아진 상태를 ‘몰입’이라 한다면 마음에서 몸, 몸에서 도구까지 ‘몰입’과 ‘분산’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주의 분산하기●

어렸을 적 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면 빈 종이에 네모 칸을 그려 달력을 그리곤 했다. 지나간 날짜에는 ‘X’ 표시를 하여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리고 ‘X’ 표시를 하지 않은 날짜를 세어 남은 날이 얼마인가,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를 생각했다. ‘고통 감내 기술’이라는 것을 배우고 난 지금, 나는 그때를 떠올리며 네모 칸이 그려진 모눈종이에 ‘X’ 표시를 한다. ‘X’를 표시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나의 고통을 분산시키고자 한다.

-숨 관찰하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과정에 주의를 집중하여, 몸의 감각이나 숨의 길이를 관찰하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숨 관찰하기’ 훈련에 기초해 작업한다. 나는 ‘호흡(들이쉬고 내쉬기)’을 통해 고통을 지나가게 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자 한다. 이 과정을 작업으로 옮겨와 캔버스에 ‘호흡하기’를 하여 일종의 수행 또는 심리치료로서 작업하고자 했다.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서 연상하여, 어렸을 때 하던 미술 놀이 중에 종이 위에 물감을 떨어뜨린 후 빨대로 부는 것을 떠올렸다. 이것에서 착안하여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린 후 빨대로 불어 호흡을 담아낸다. 들숨에 마음을 모아 내쉬는 숨에 붙잡아 놓았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흘러보낸다.

-자각하기●

자각하기 훈련을 통해, 나와 우주와의 연결성을 자각하면서 느낀 점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구획 사이사이에 있는 검은색 선들은 연결성을 나타낸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표현했다. 나는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들은 각자 존재하면서, 동시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작품에 담아냈다. 여러 색상을 사용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를 표현했다. 각각의 색상 또는 각각의 구획이 하나의 존재를 대변한다. 세상에는 여러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 존재들이 단지 함께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실 수용의 기본 원리●

2017년에 작업한 작품들 「수용에 기반한」은 현실을 용인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수용의 정신에 기반을 두어, 지지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원래 모습 그대로를 담아내고 나아가 본질을 드러내며 수용을 추구하고자 했다. 천의 색상이나 질감, 겹을 부각하거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천 자체의 본질을 수용하고자 했다. 2021년의 작품 「드러내기」는 내면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담아, 캔버스 프레임의 이격이 없는 부분에 면포를 씌워 린시드유를 부분적으로 발라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프레임 일부분이 드러나게 했다. 이 작업 방식은 내면의 불완전함을 일부 드러내어 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인정하고자 하는 다짐이 담겼다. 또한 프레임, 즉 불완전함을 덮고(감싸고) 있는 면포는 불완전함을 따듯하게 감싸 안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 「꼬뚜뽀」: 코코넛 잎을 엮어 안에 흰쌀을 넣은 ‘꼬뚜뽀’는 속죄의 의미를 담아 만들어 먹는 음식이다. 꼬뚜뽀에는 변명과 행복, 악령을 물리친다는 등의 의미들도 있지만 내가 주목한 점은 속죄의 의미를 담아 잎을 엮는 행위와 흰색 쌀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얽힌 잎은 인간의 잘못, 죄를 상징하고 흰색 쌀은 타인을 용서한 후의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상징한다. 이 상징(억대, 흰색)을 나의 작업으로 가져와, 꼬뚜뽀를 만들며 속죄의 의미를 담듯, 작품을 만들며 내면의 완전함을 기원하고자 했다. 나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캔버스 프레임은 흰색 캔버스 천으로 엮어 감싼다. 흰색 캔버스 천은 온전함, 완전함을 상징한다. 이것을 엮는 행위에 온전함을 향한 기원을 담는다. 천을 엮으며 캔버스 프레임을 감싸는 행위에는 불완전함을 감싸 안는 ‘받아들임’의 의미를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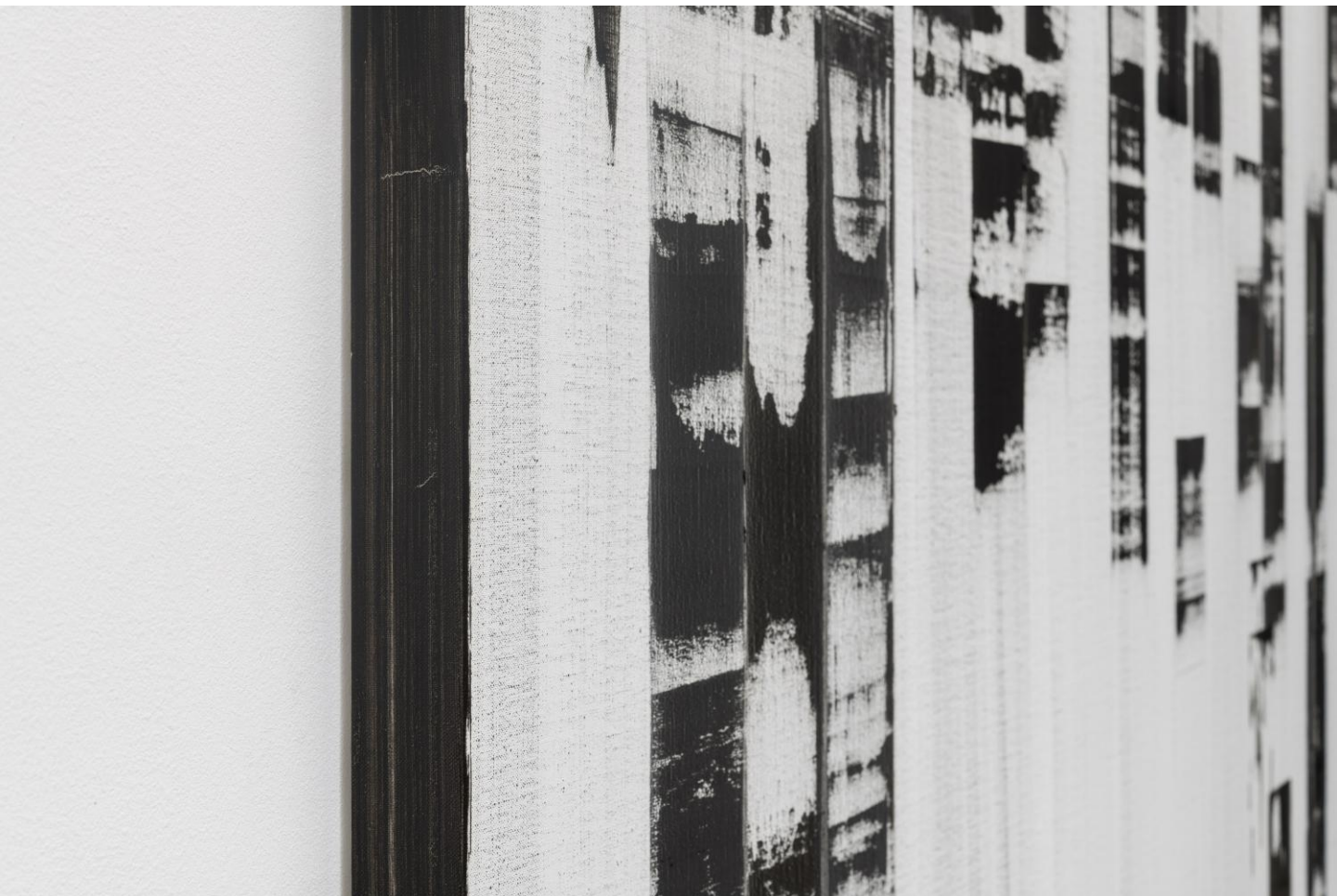


●테플론 마인드, 2023,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촛농, 210x158cm





● 통합되지 않는, 2022, 캔버스에 유채, (좌)210x315cm (우)210x4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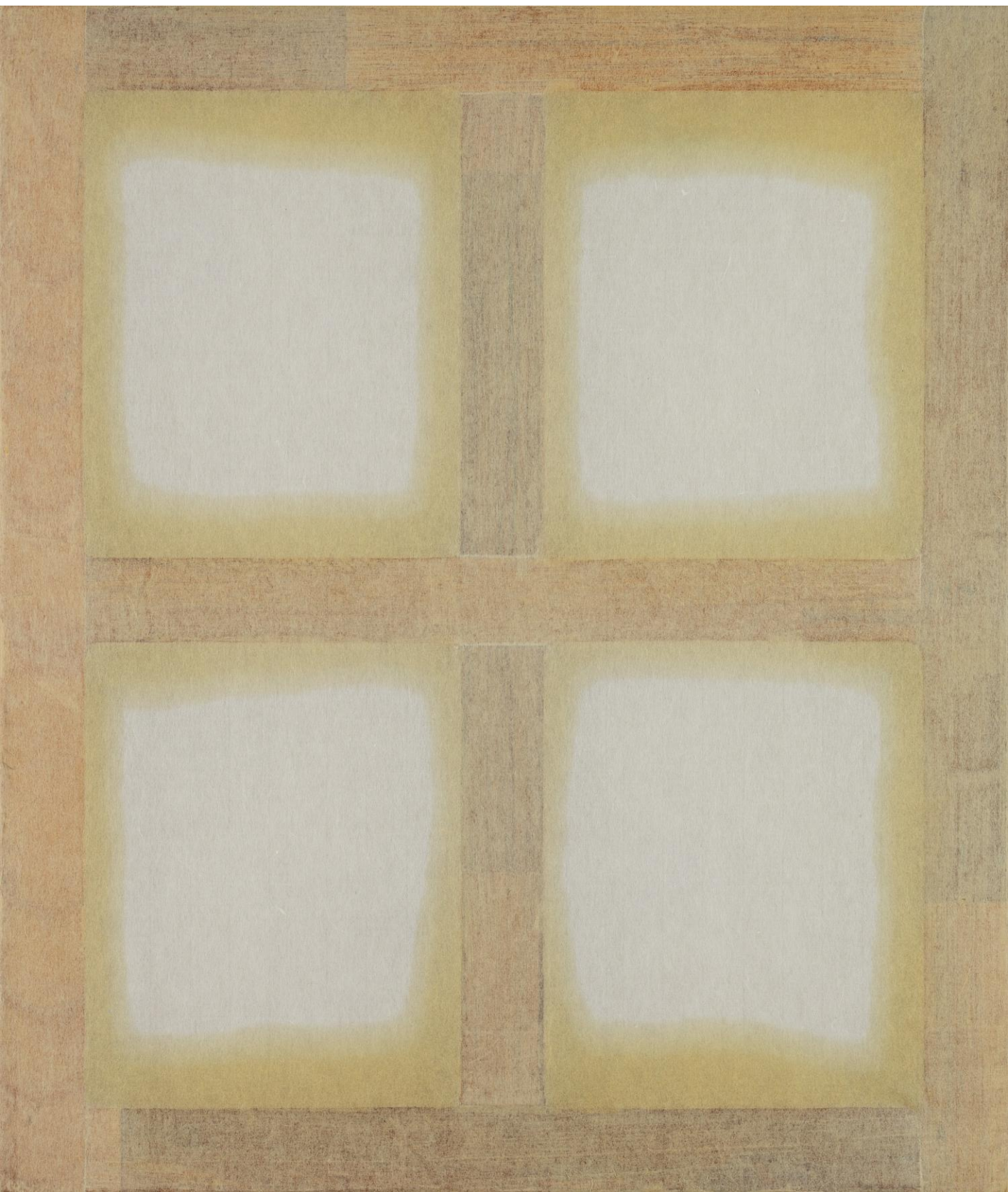


●호흡하기, 2022,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210x15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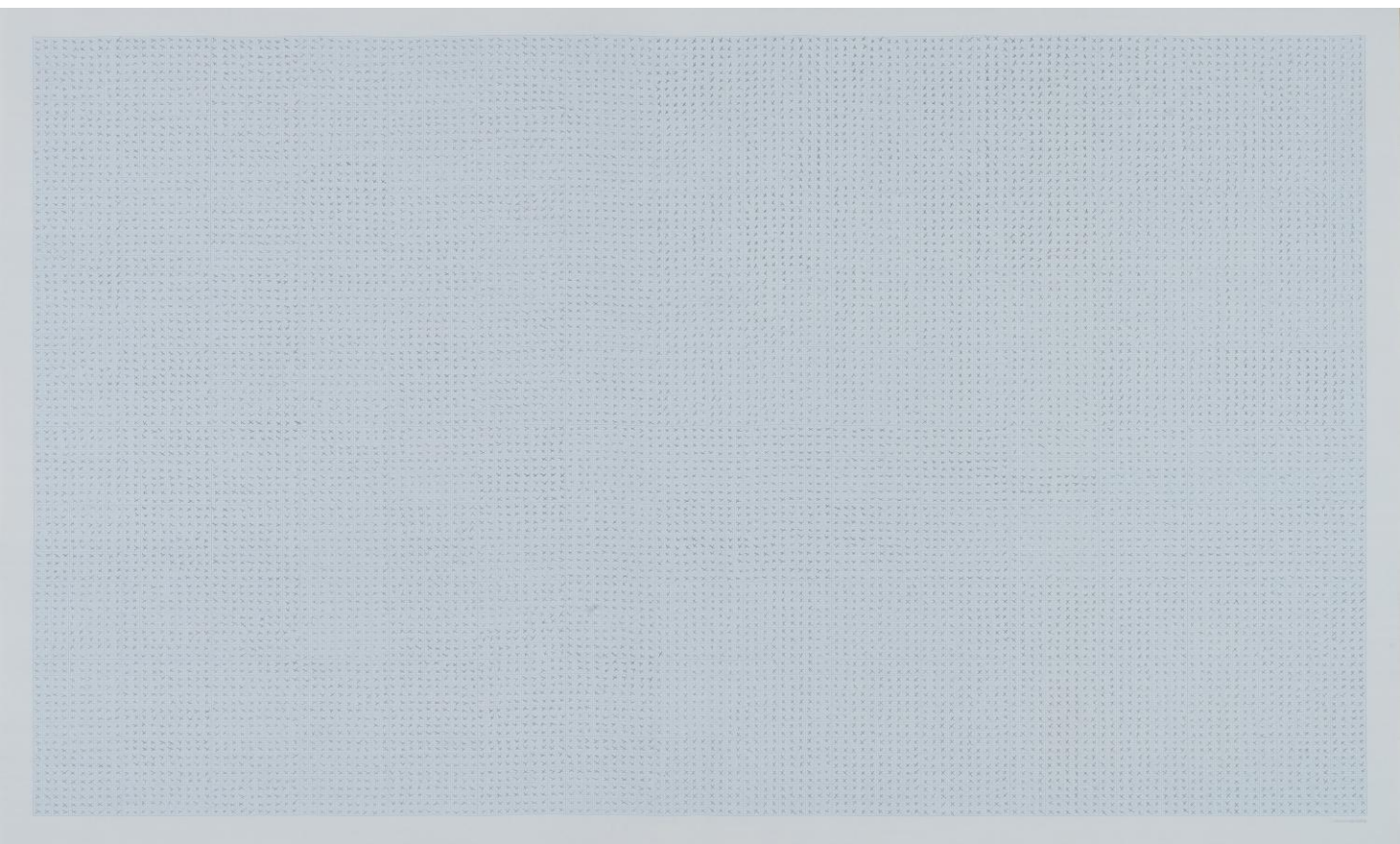




●드러내기, 2022, 나무틀에 한지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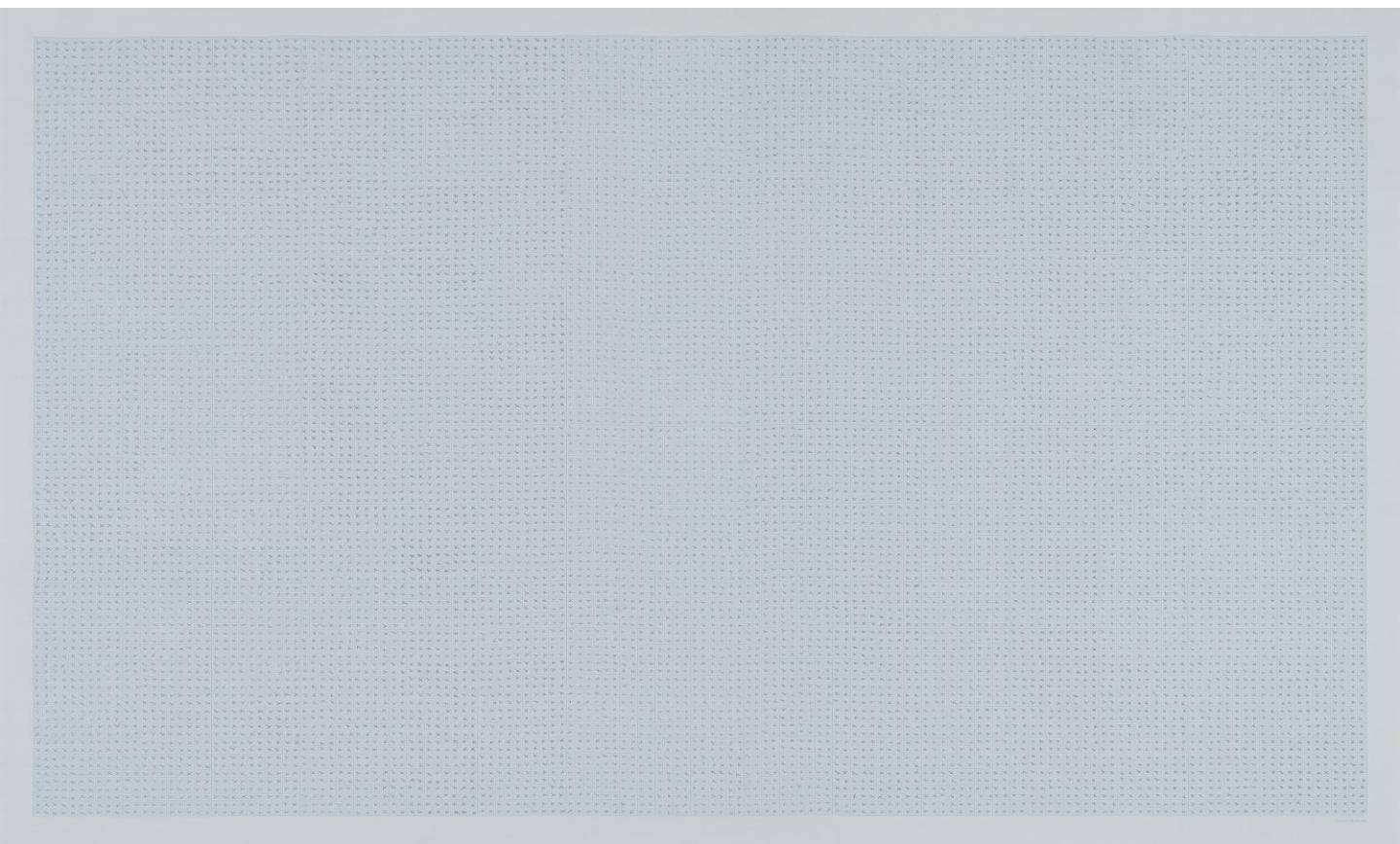


● 꼬뚜뵤, 2022, 나무틀에 캔버스 천, 53x45.5cm



●달력 지우기, 2021, 모눈종이에 연필, 54.3x78.5cm





●달력 지우기, 2021, 모눈종이에 연필, 54.3x78.5cm





● 드러내기, 2021, 면포에 린시드유, 145.5x96.8cm



●LB, 2021, 캔버스에 유채, 91.4x116.8cm



●테플론 마인드,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쫓농,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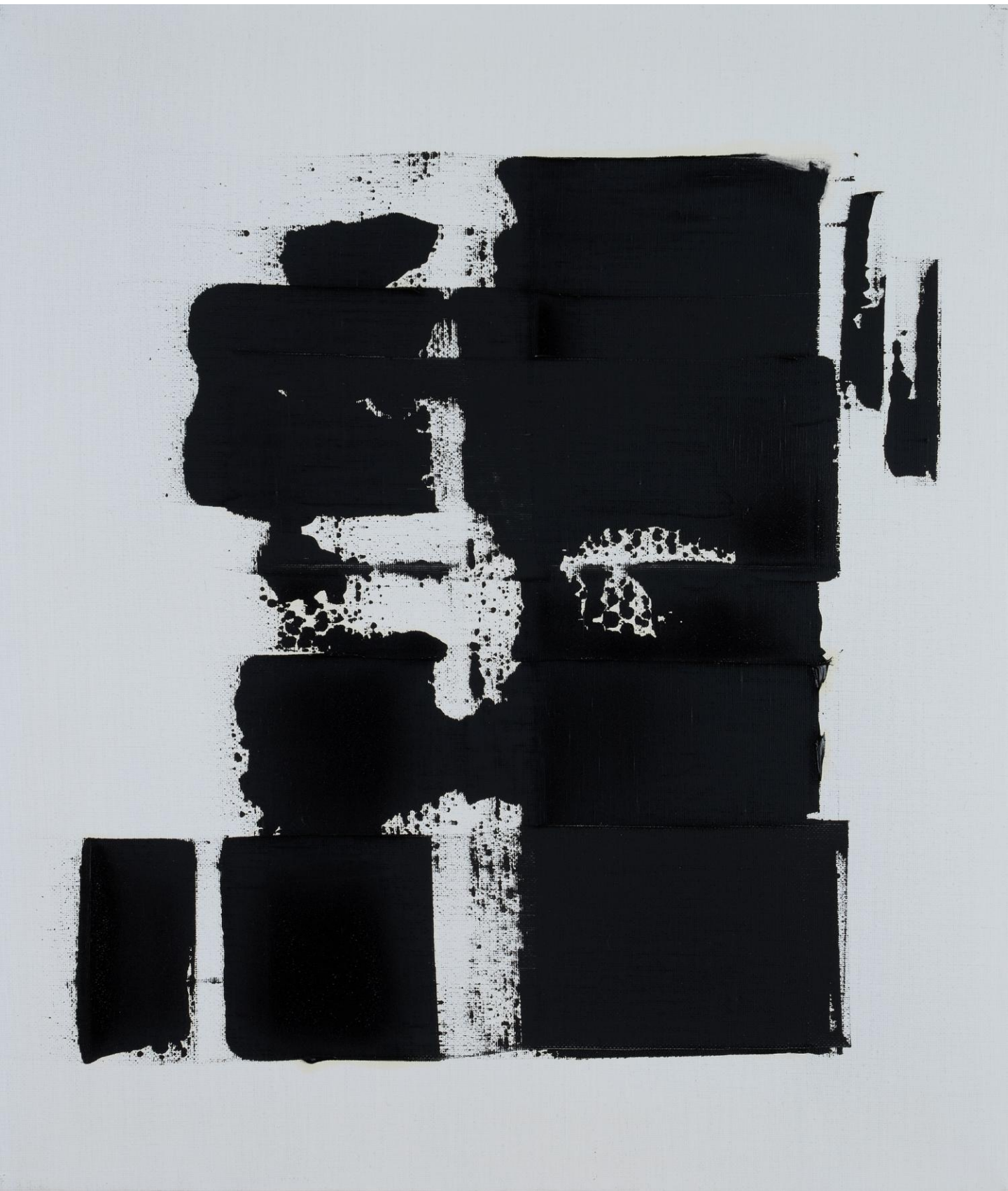
●테플론 마인드,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쏫농,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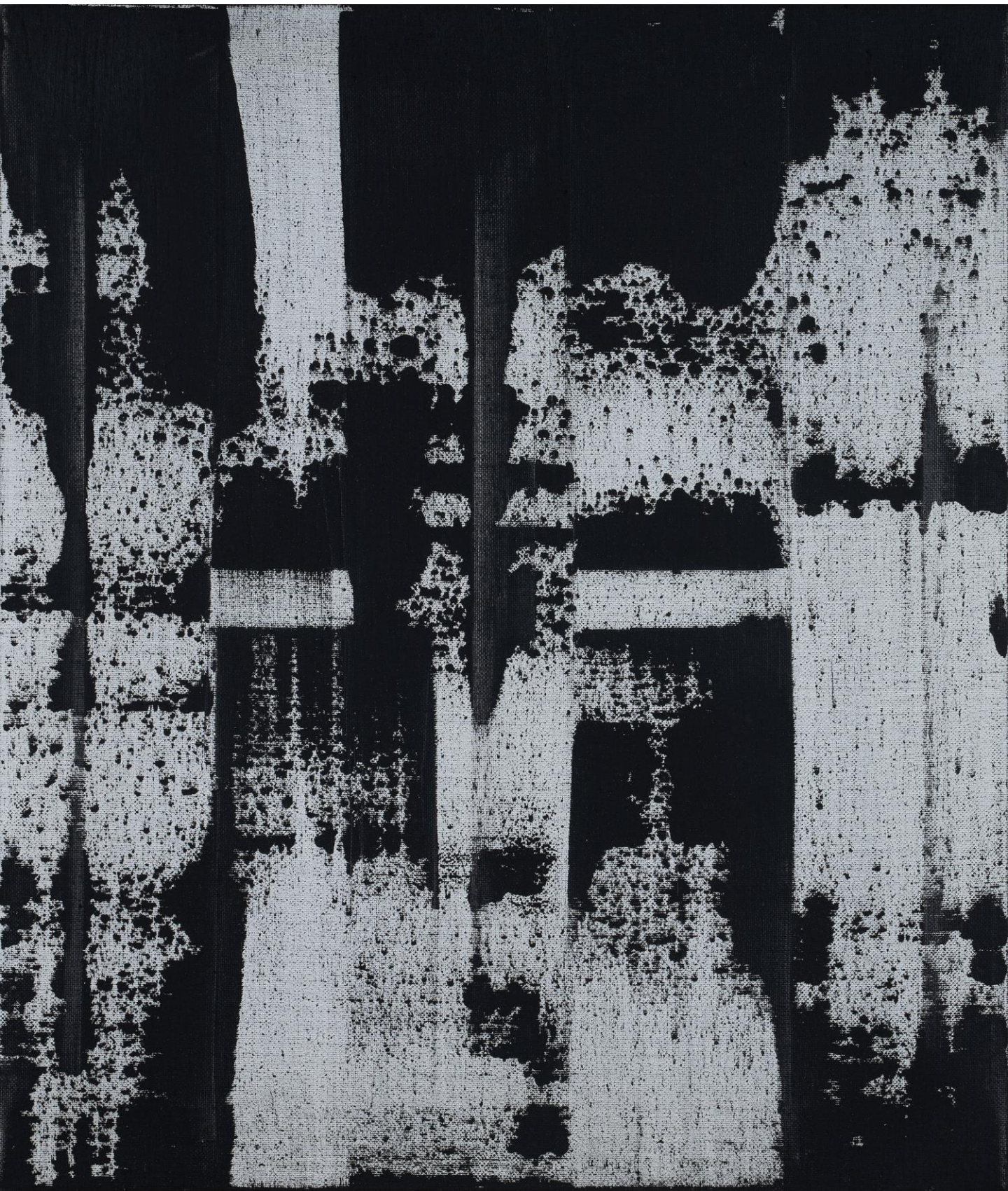
●테플론 마인드, 2021, 캔버스에 아크릴과 콜드 왁스 미디엄, 53x45.5cm



● 테플론 마인드, 2021,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콜드 왁스 미디어,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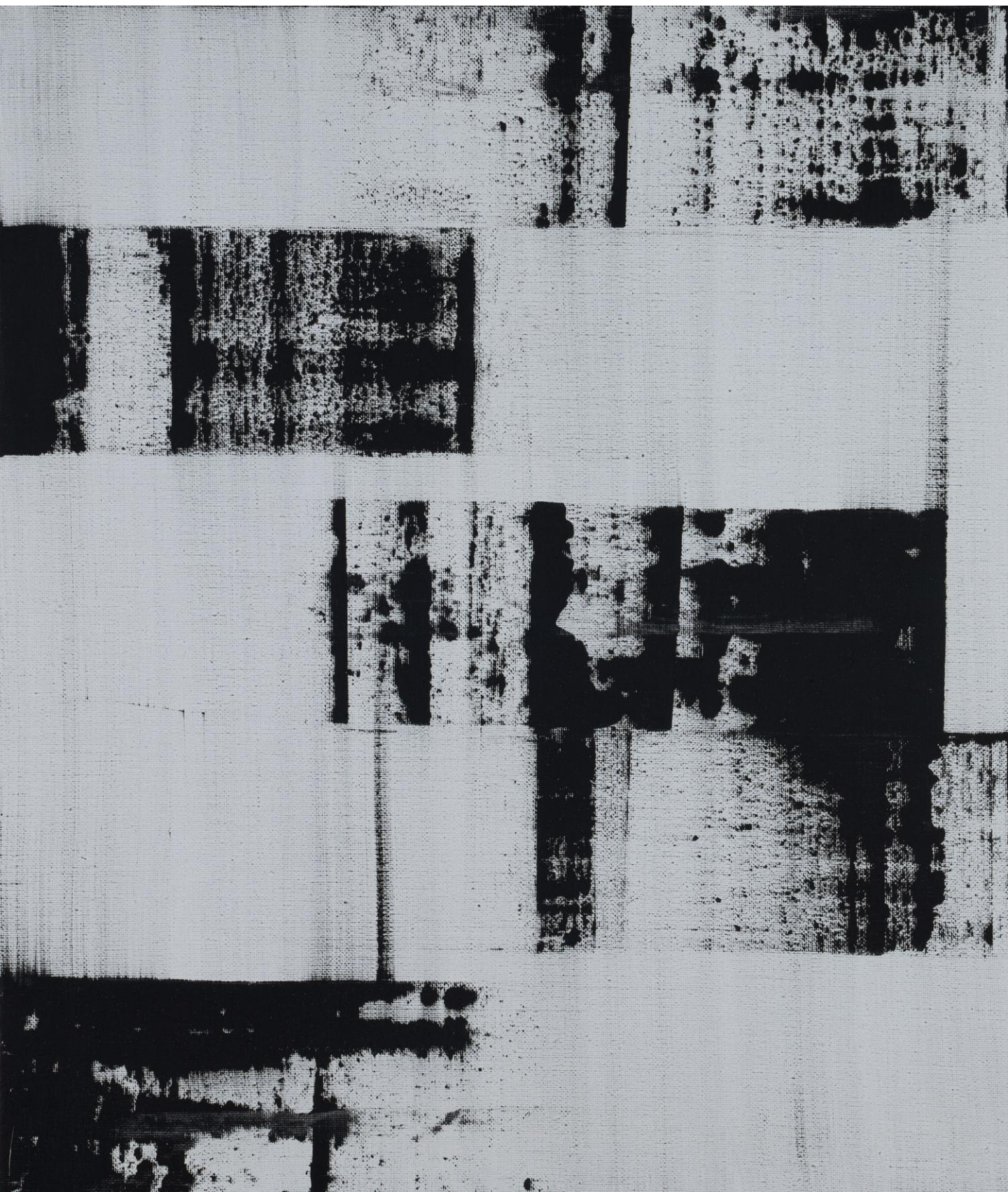
●내 마음의 방, 2021,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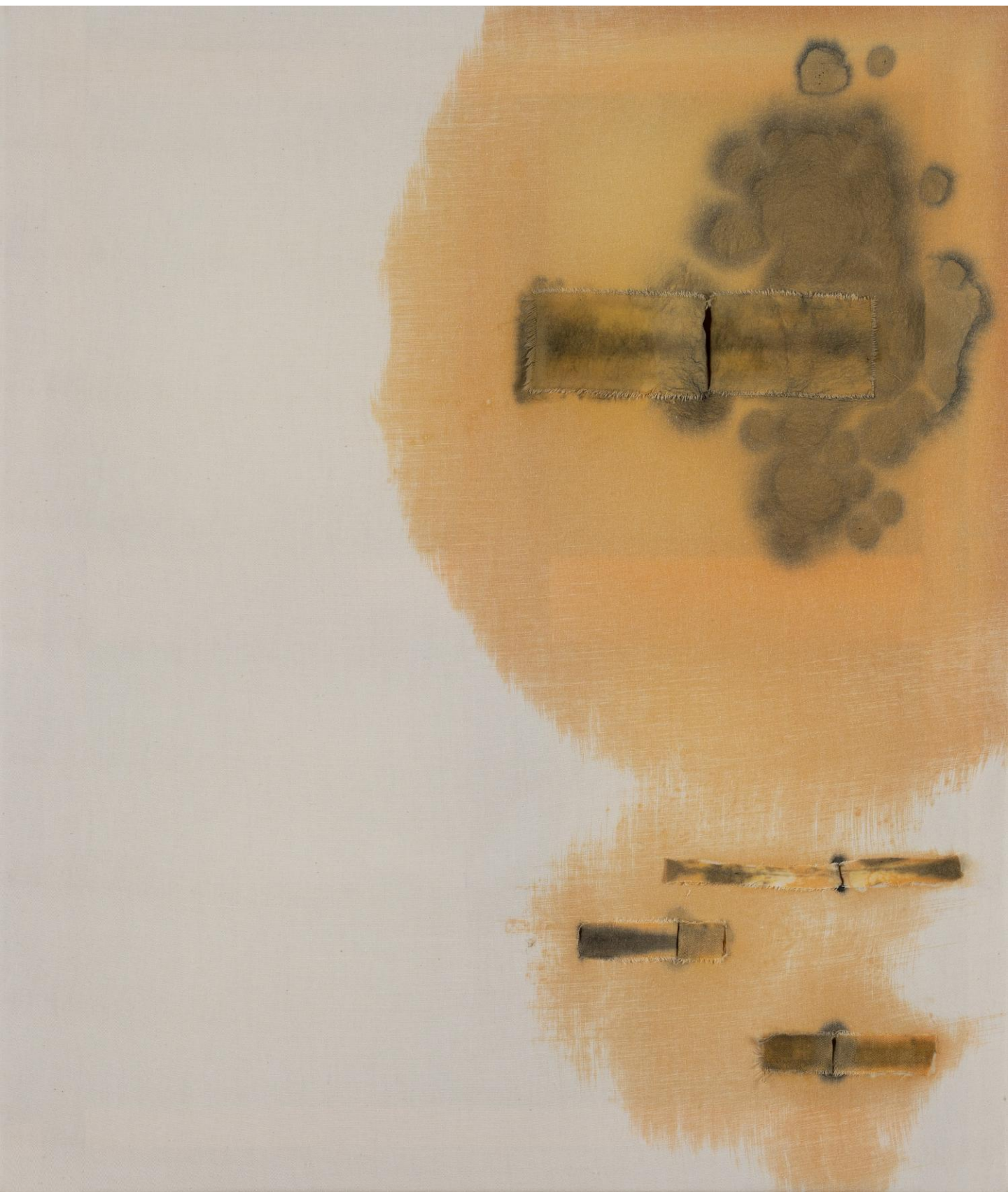
●내 마음의 방, 2021,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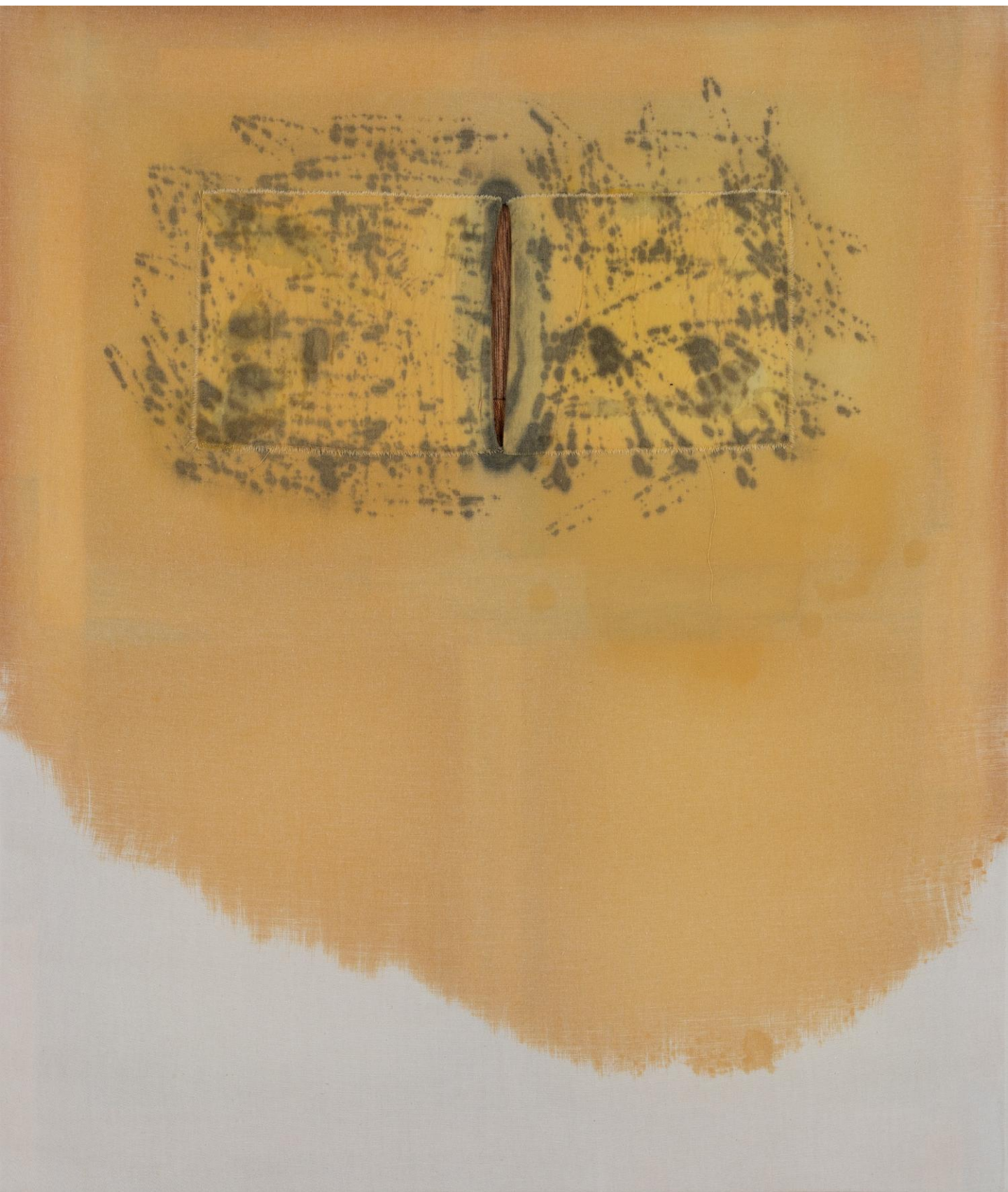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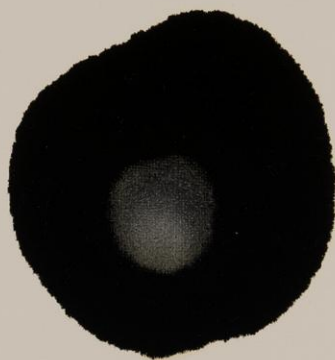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면포,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면포, 53x45.5cm







●호흡하기, 2021,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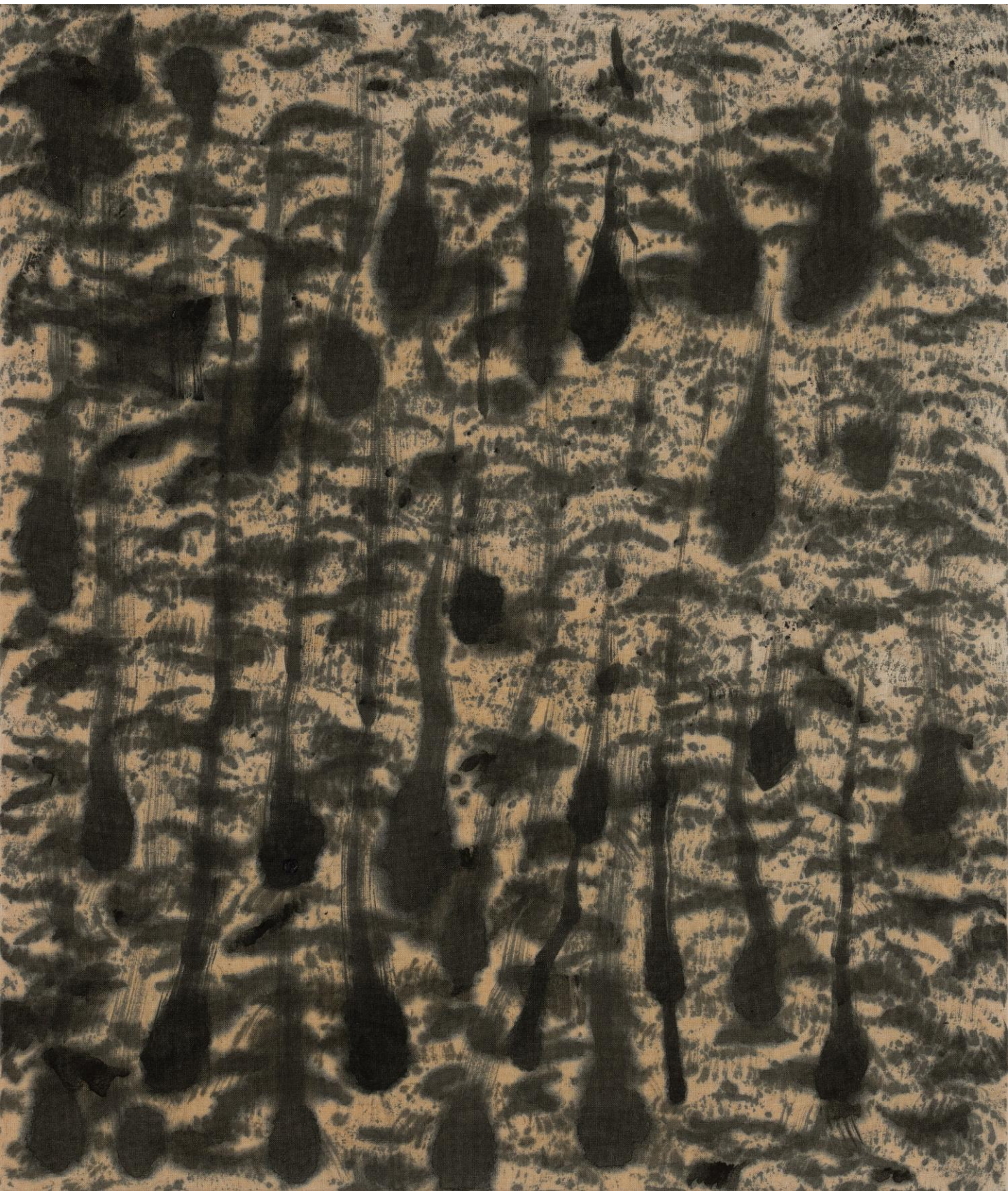


●호흡하기, 2021,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테플론 마인드, 2021,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콜드 왁스 미디어,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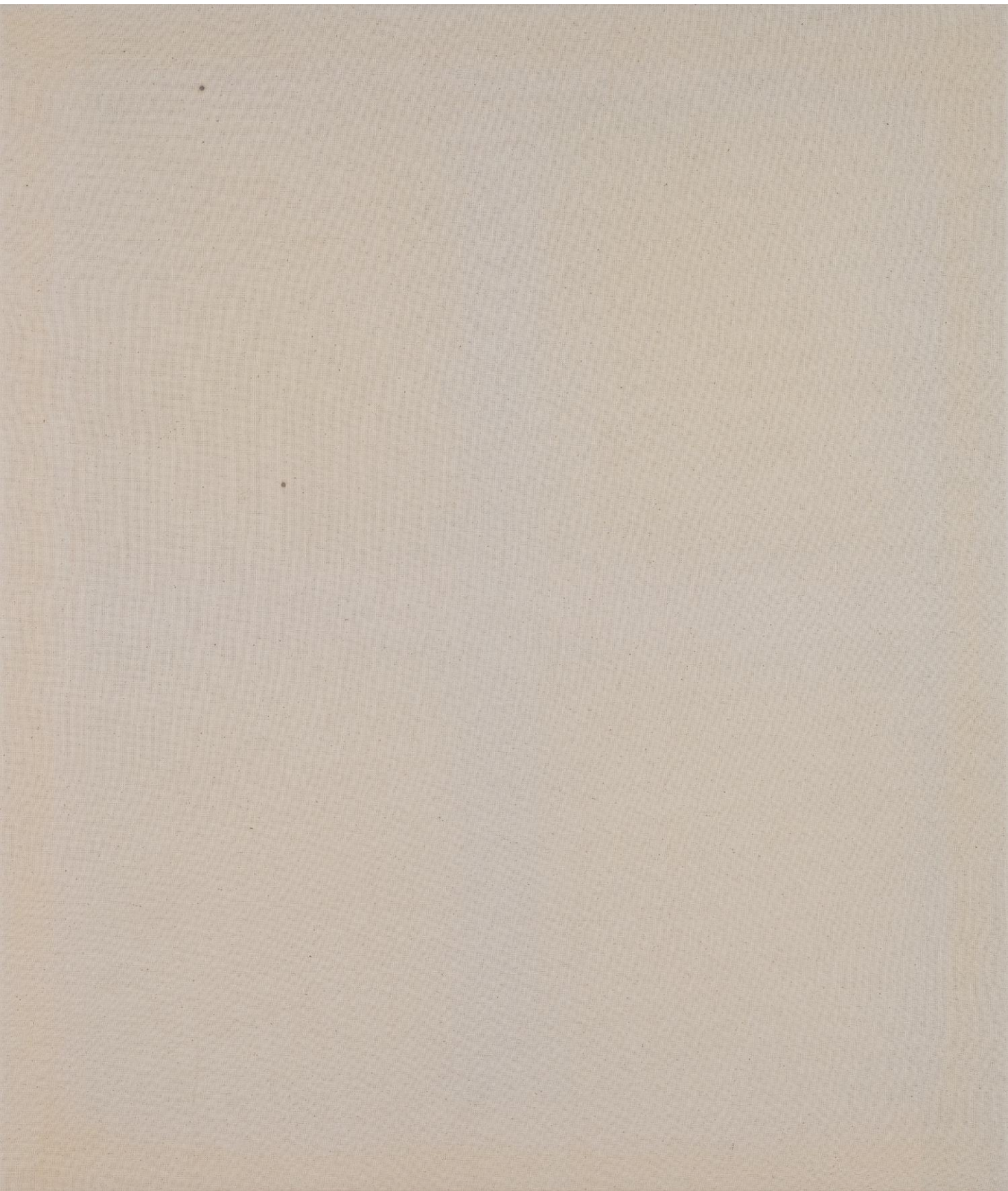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린시드유, 53x45.5cm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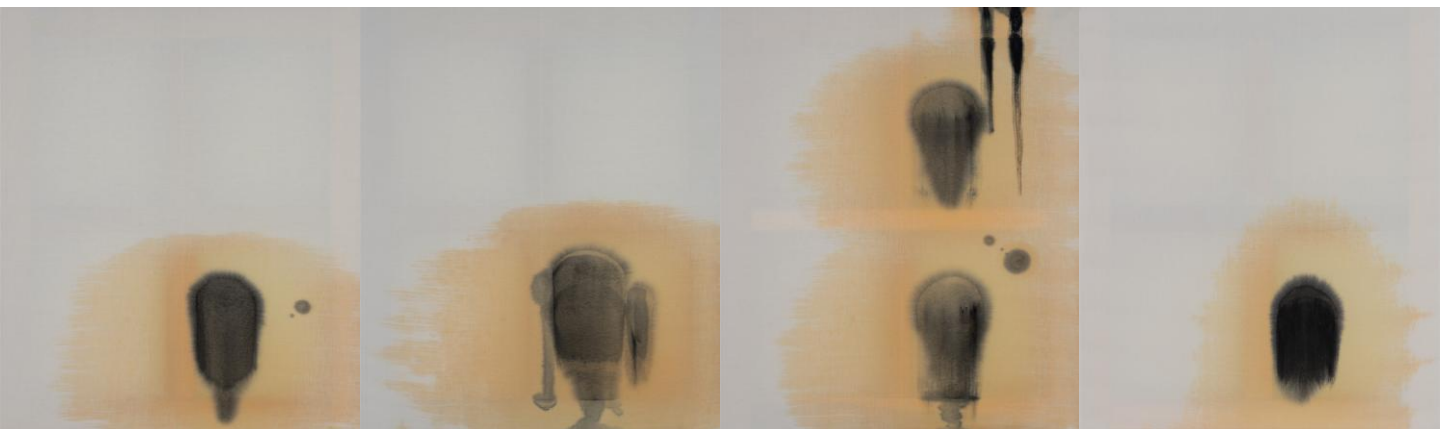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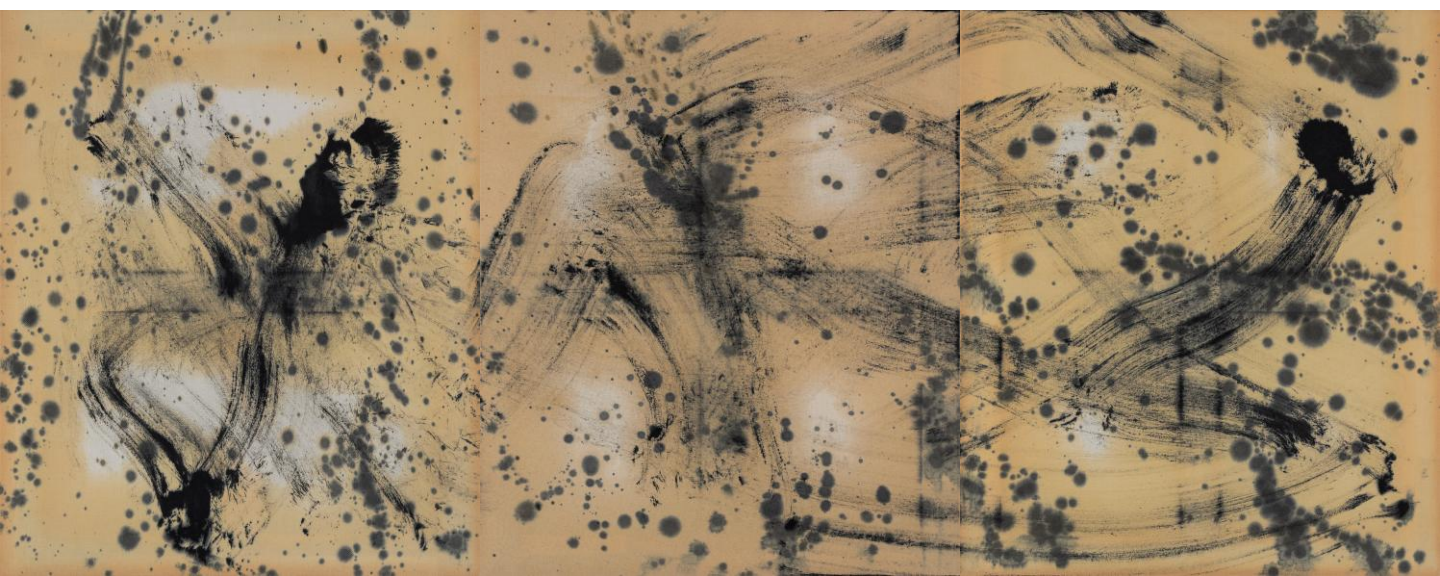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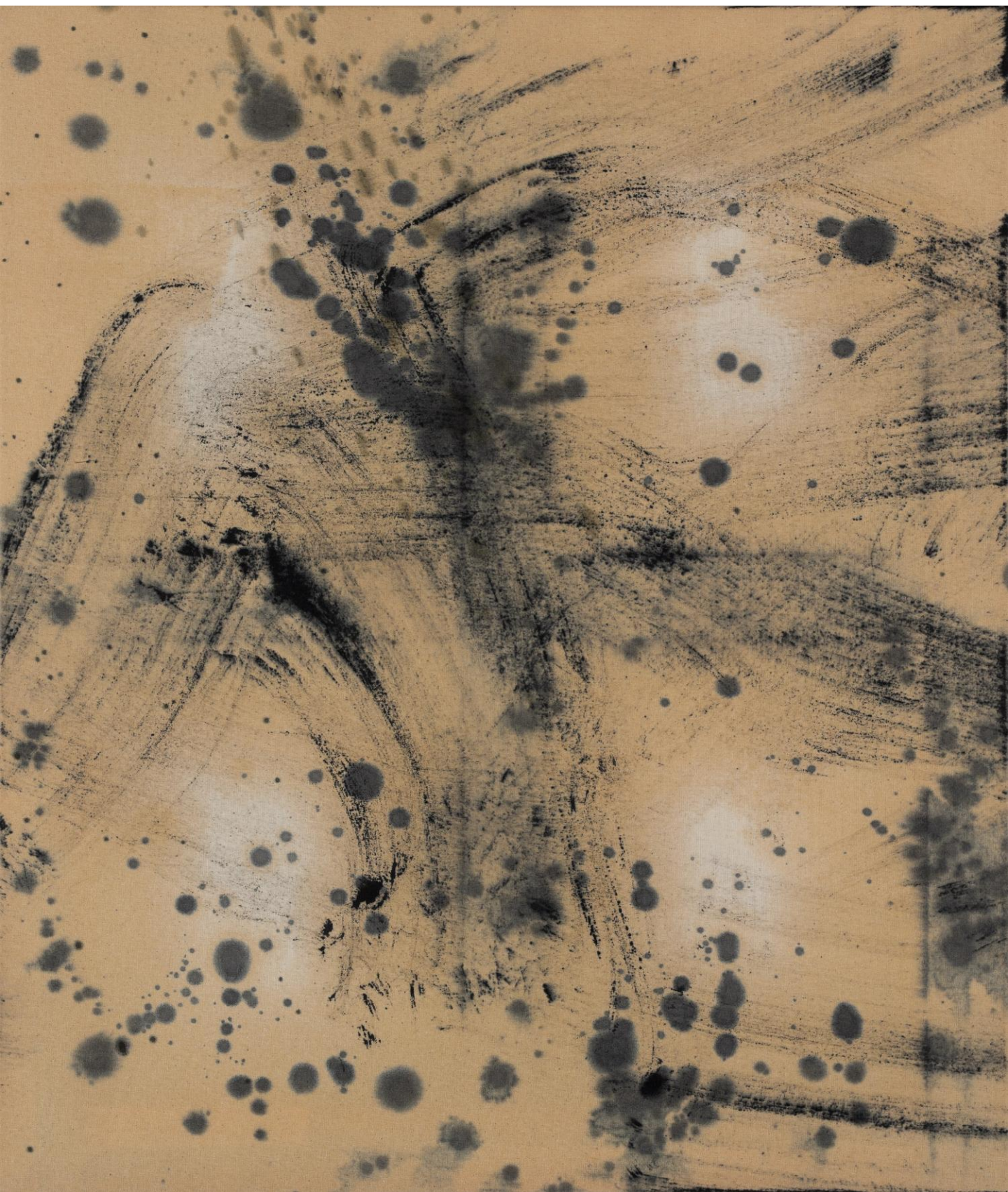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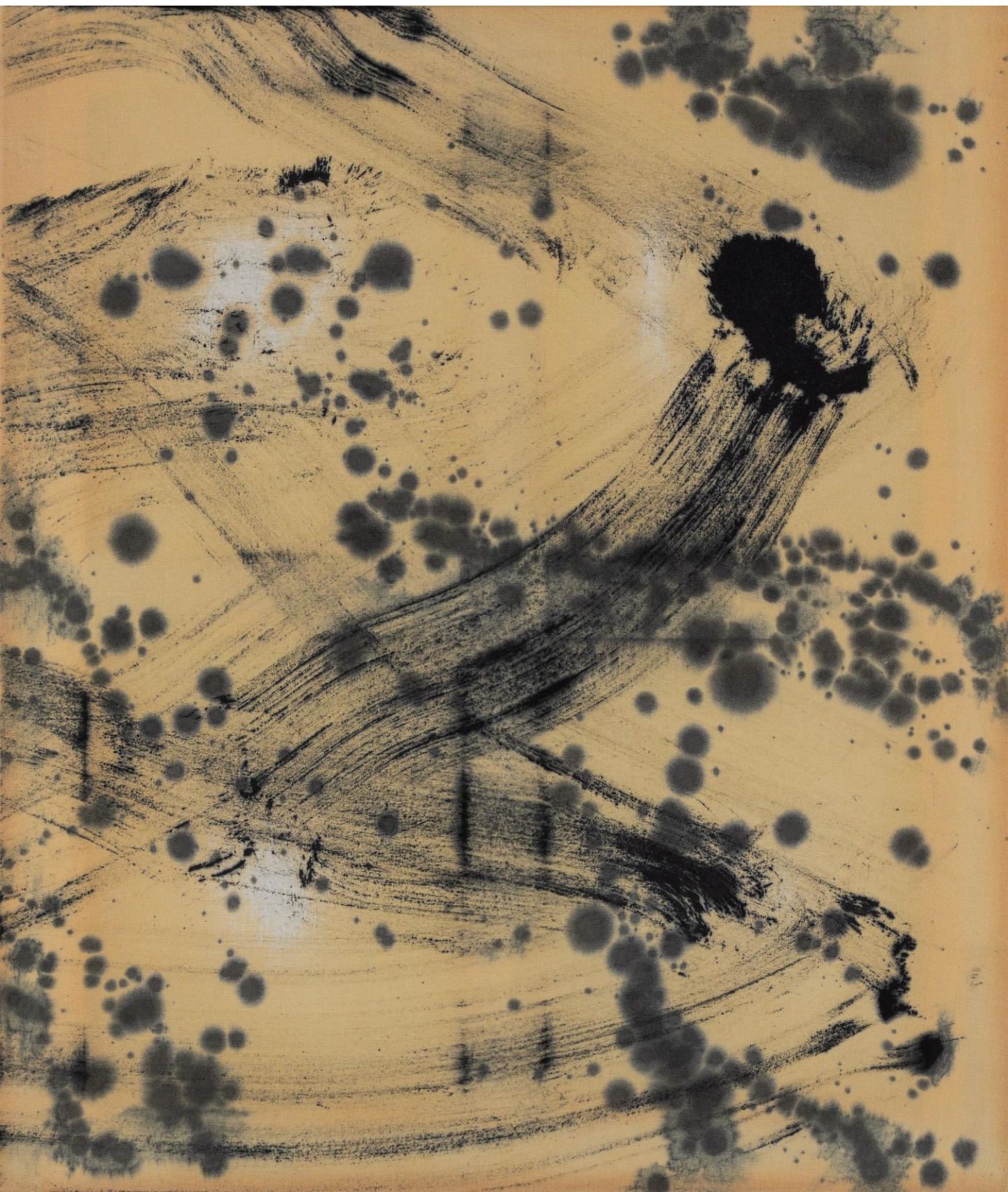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3ea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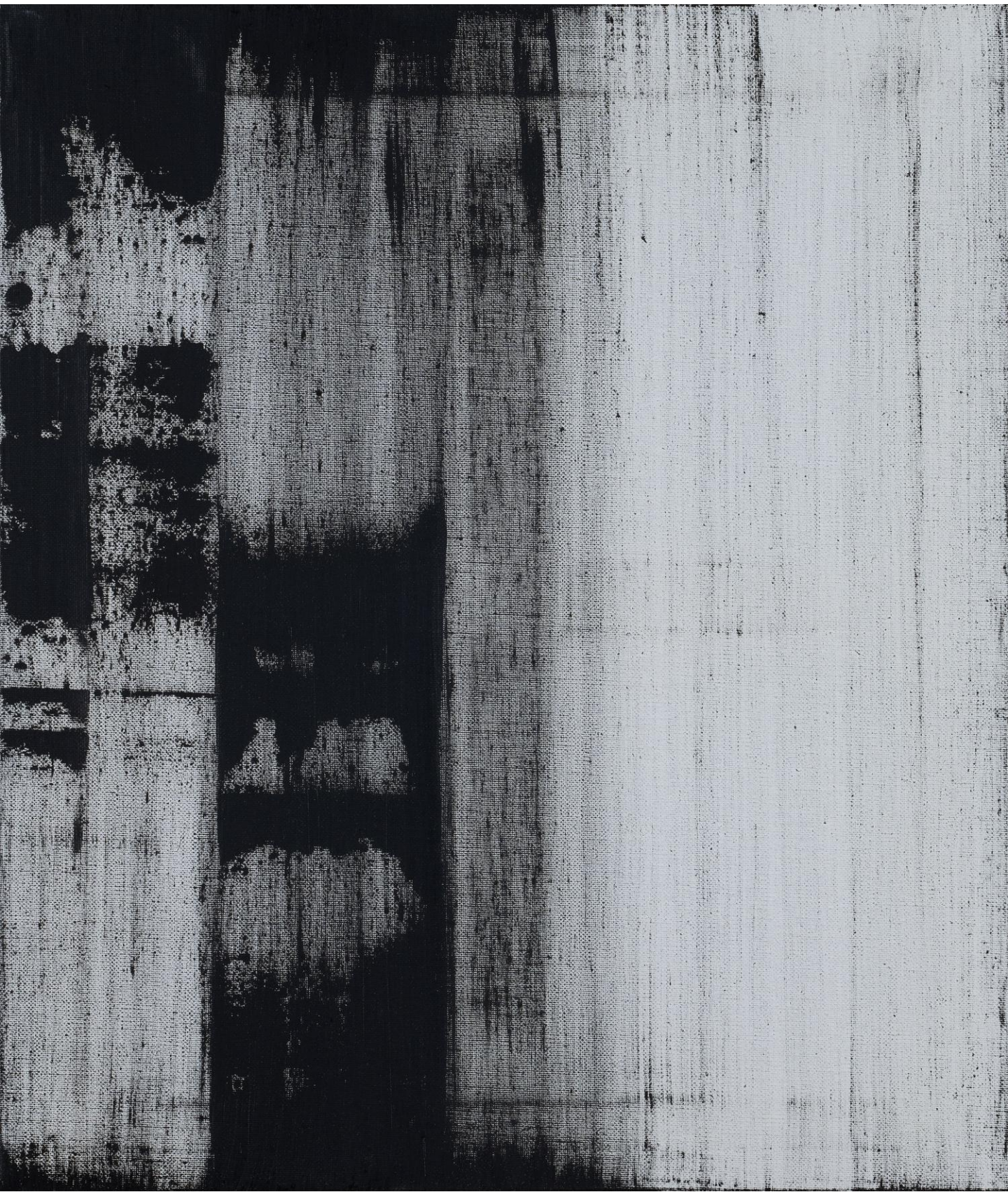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 내 마음의 방, 2021,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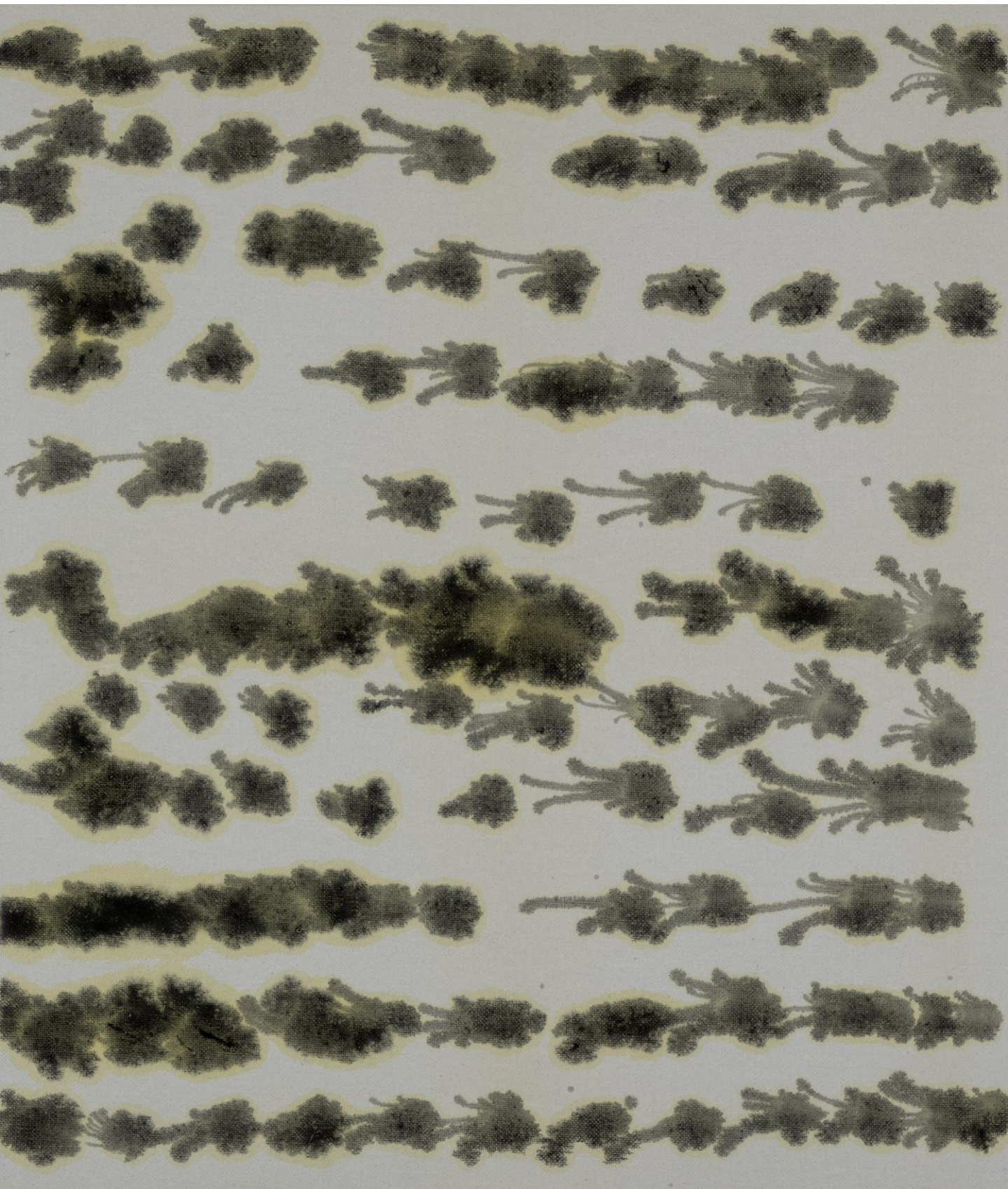


●내 마음의 방, 2021,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1,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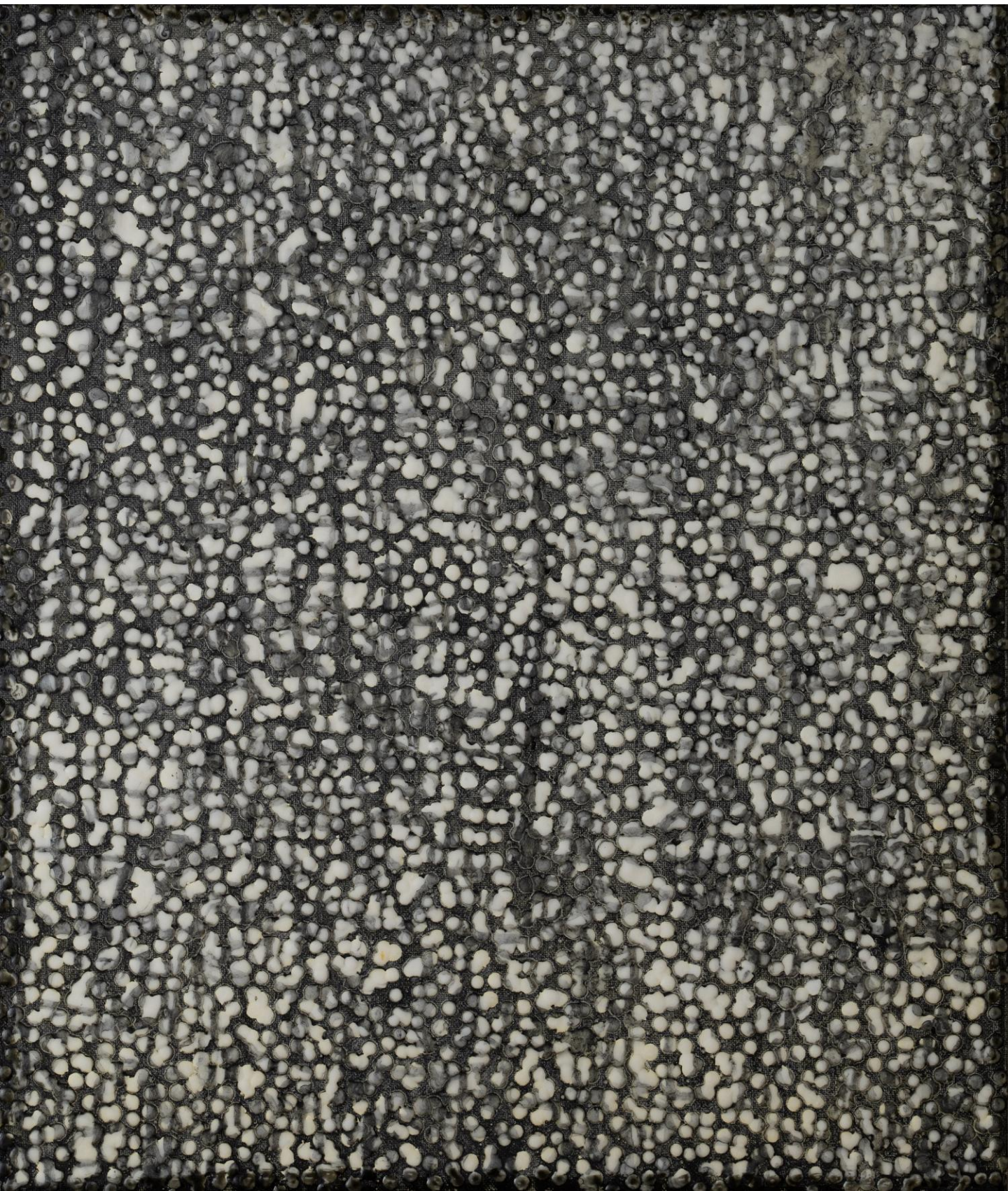




●호흡하기, 2021,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호흡하기, 2021,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 테플론 마인드, 2021,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쫓농, 53x45.5cm



●테플론 마인드, 2021,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찻농, 53x45.5cm



● 테플론 마인드, 2021, 캔버스에 유채와 린시드유, 찢농,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0,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내 마음의 방, 2020,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 내 마음의 방, 2020,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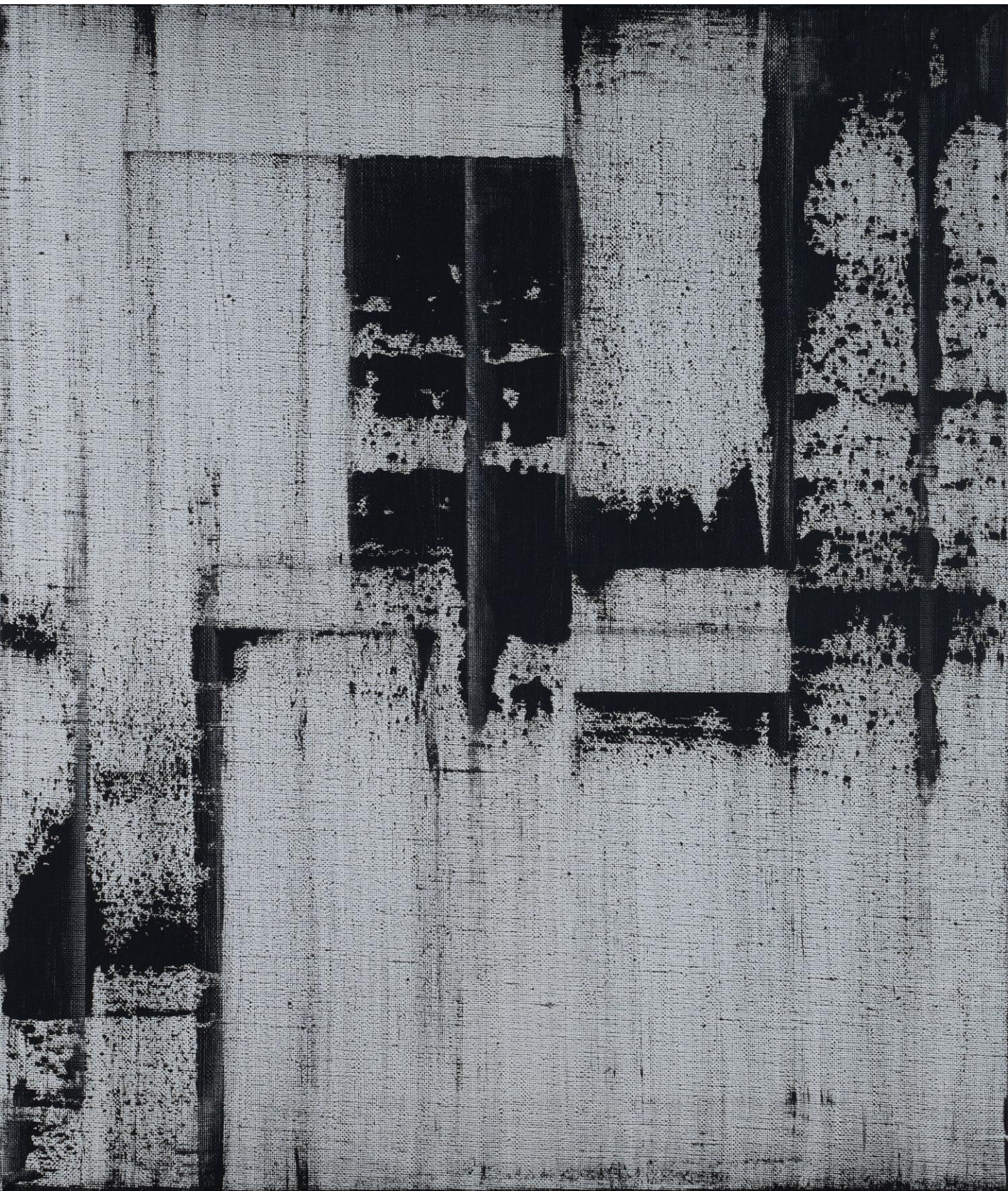


●내 마음의 방, 2020,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 내 마음의 방, 2020,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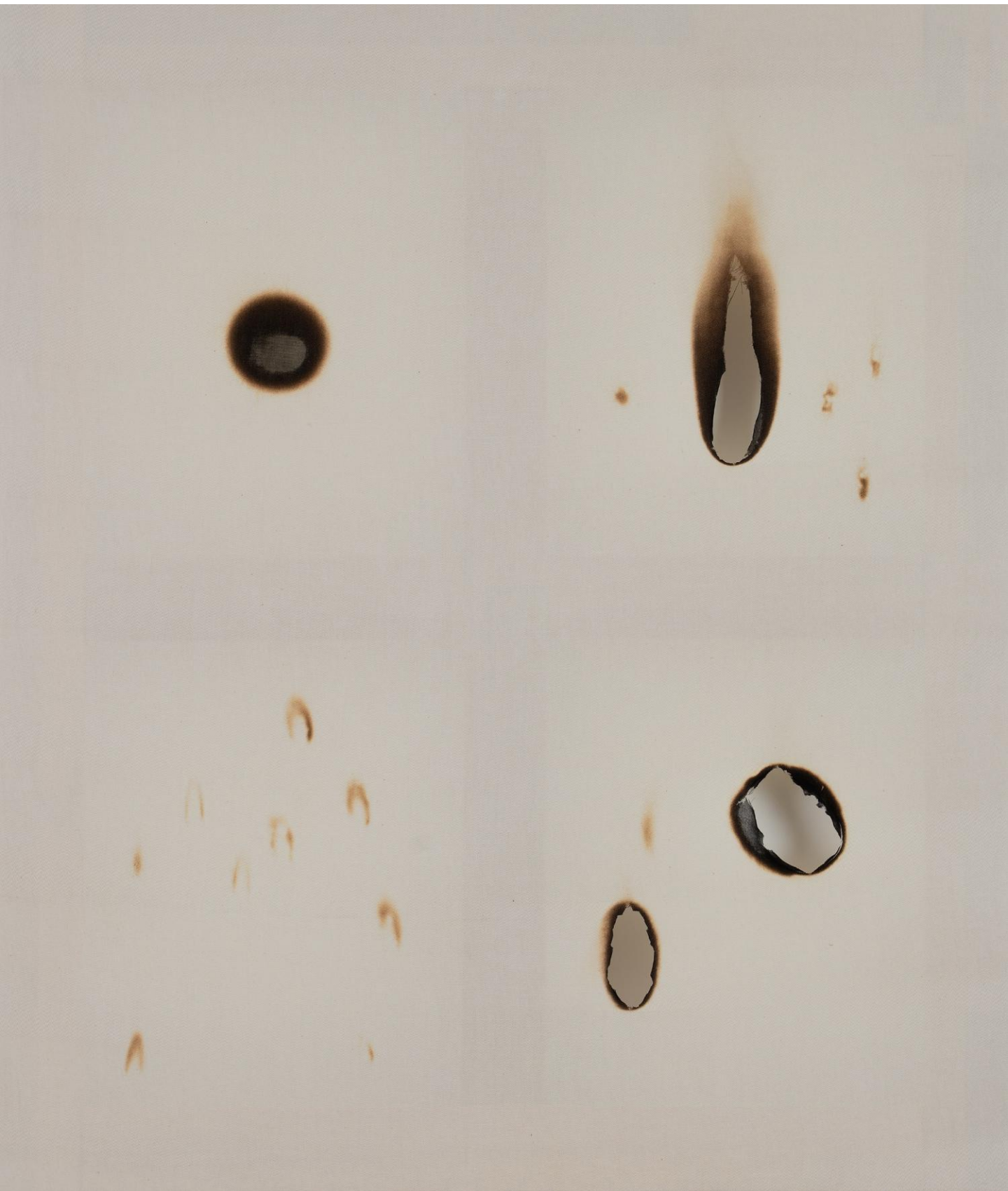


●내 마음의 방, 2020, 캔버스에 유채, 53x45.5cm



● 내 마음의 방, 2020, 면포에 유채와 린시드유,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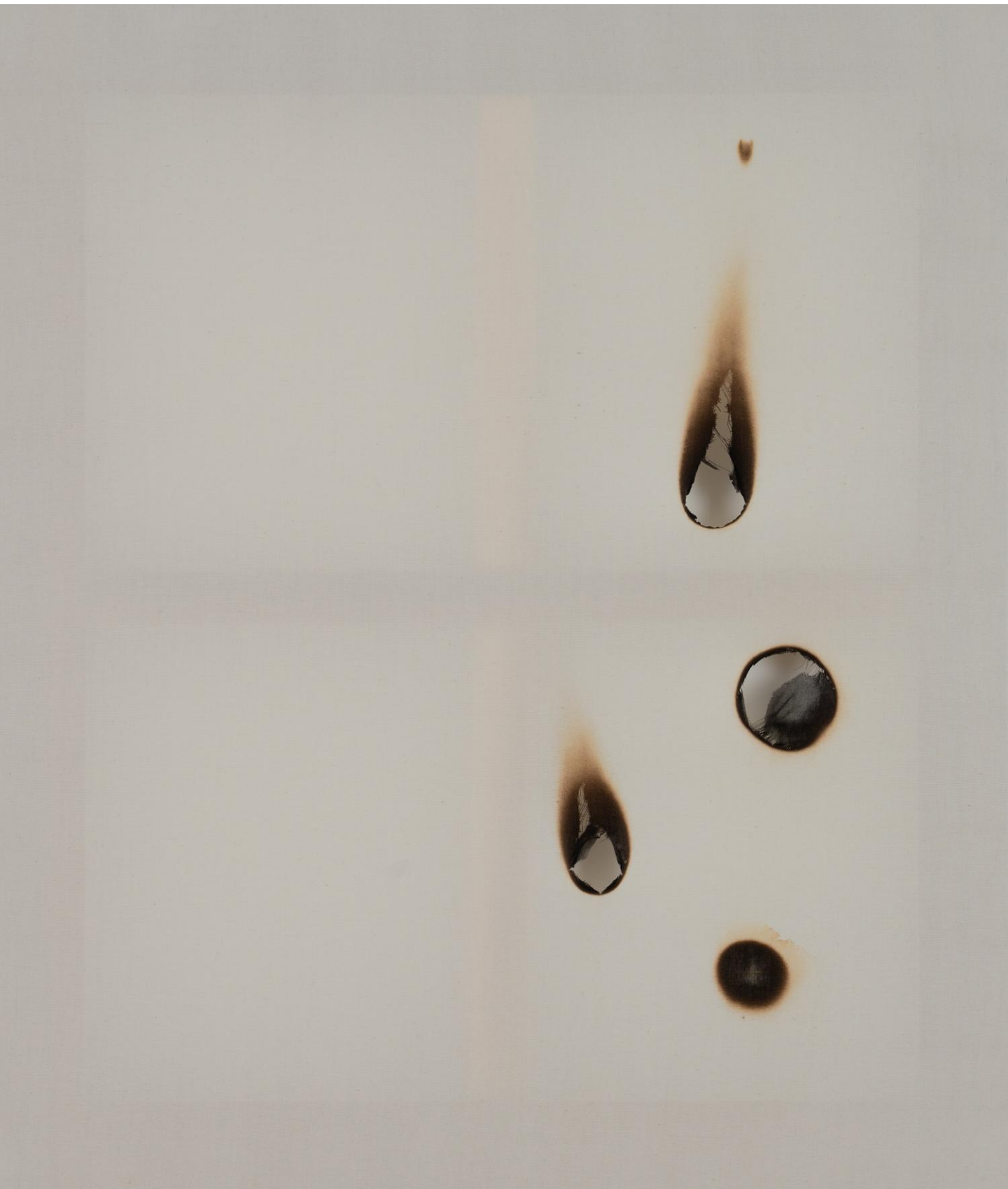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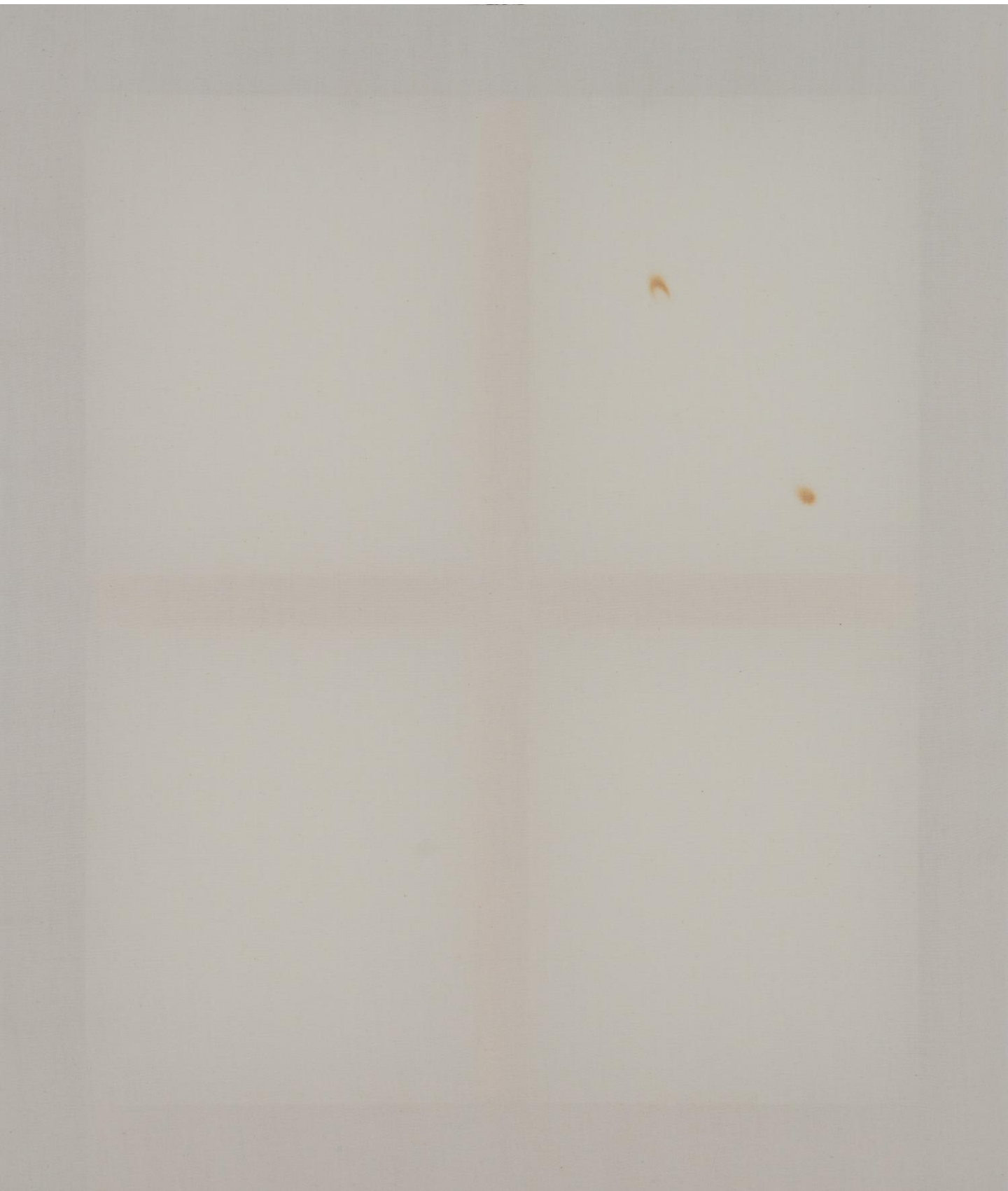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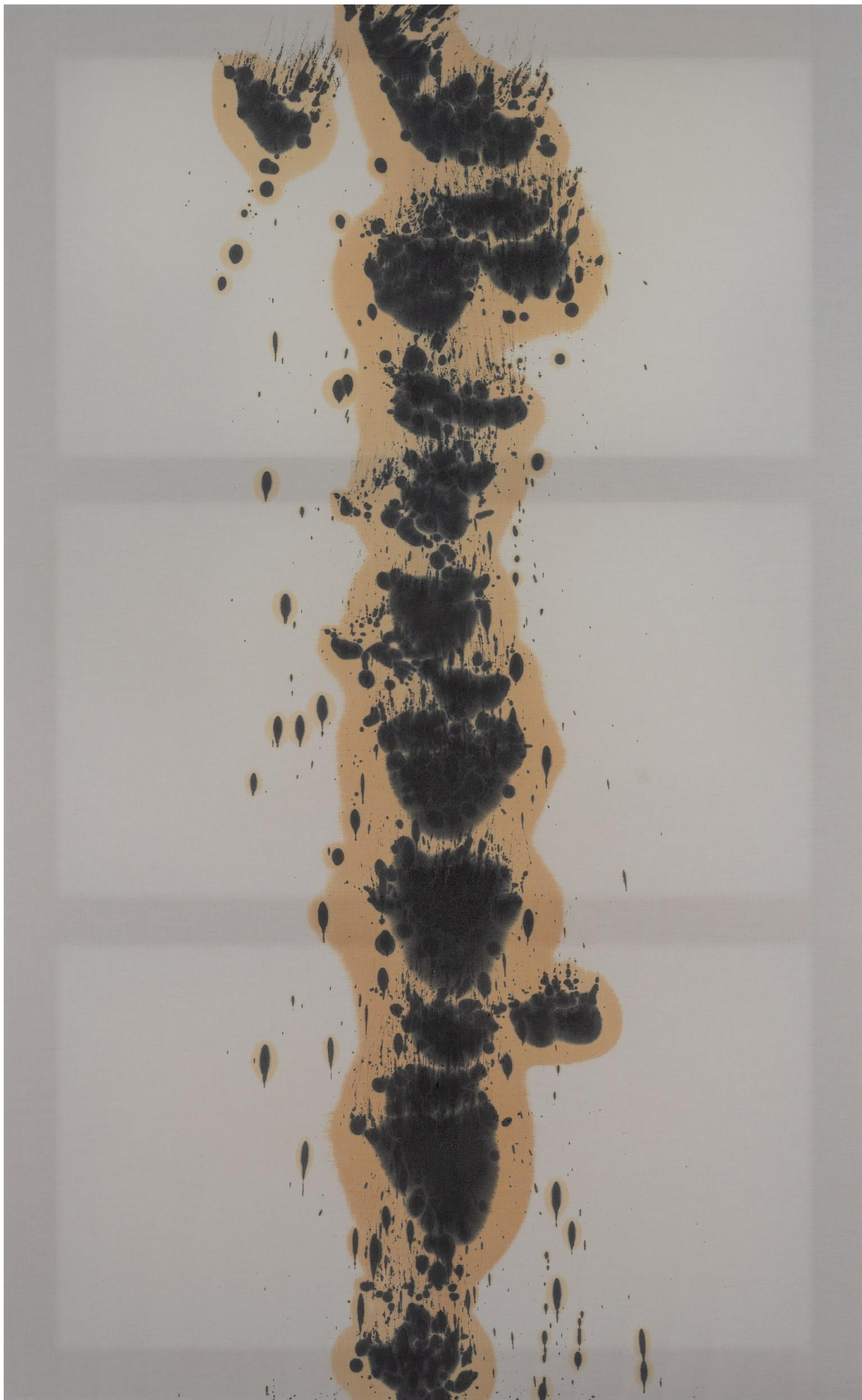




● 좁고 깊은 터널, 2020, 면포에 유채, 145.4x89.1cm



● 좁고 깊은 터널, 2020, 면포에 유채, 145.4x89.1cm



● 좁고 깊은 터널, 2020, 면포에 유채, 145.4x89.1cm



● 좁고 깊은 터널, 2020, 면포에 유채, 145.4x8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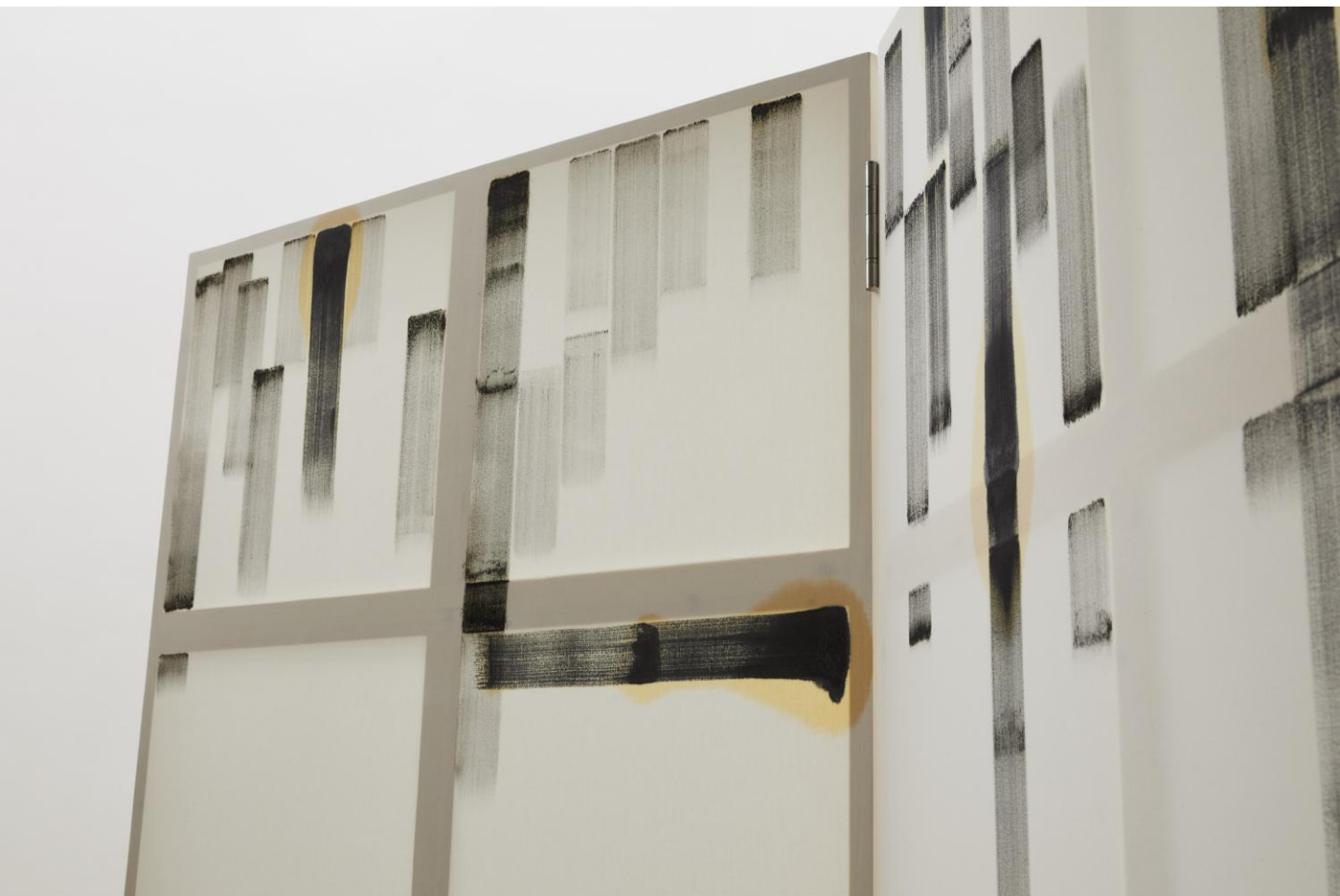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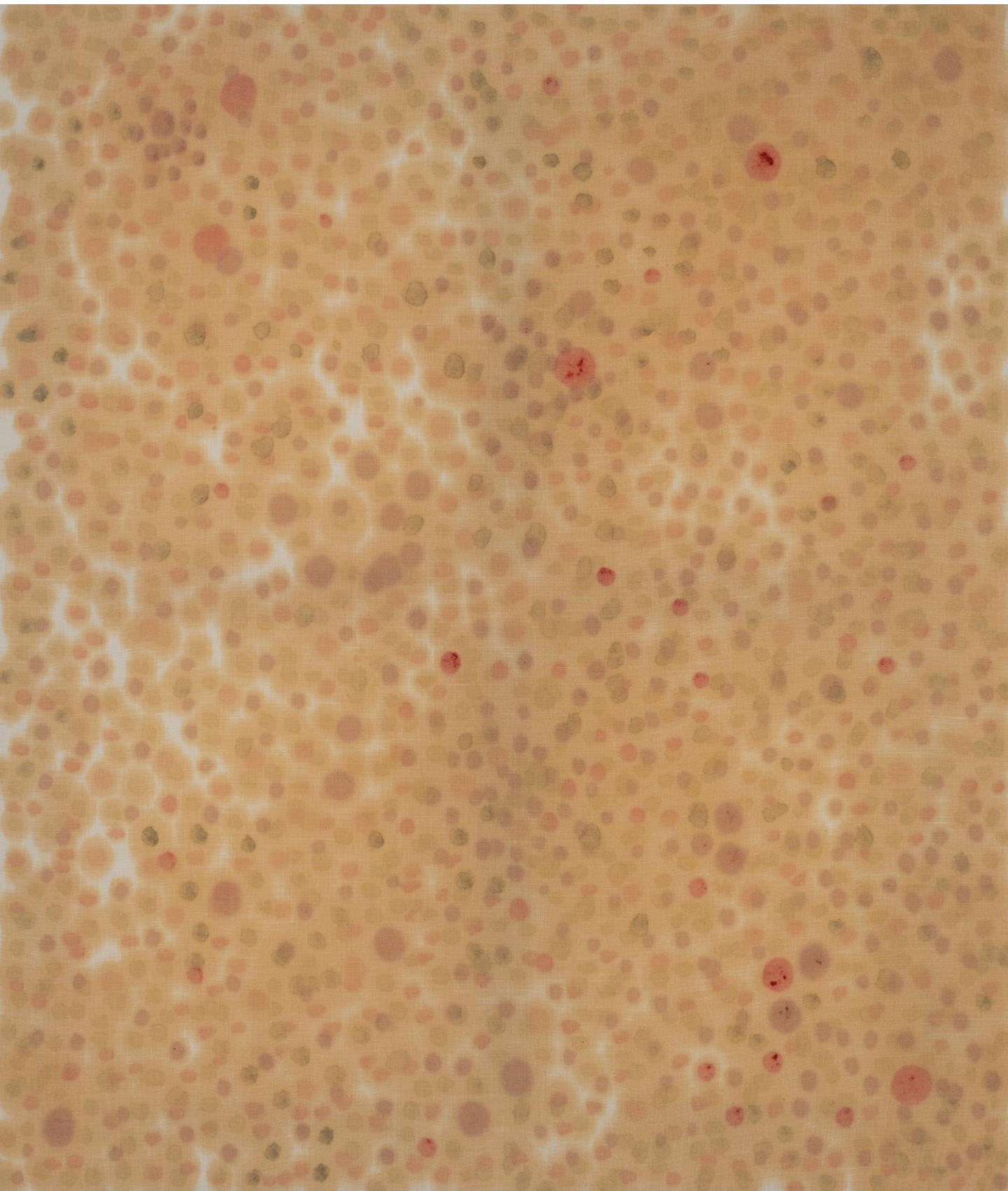
● 좁고 깊은 터널, 2020, 면포에 유채, 145.4x89.1cm



● 좁고 깊은 터널, 2020, 면포에 유채, 145.4x8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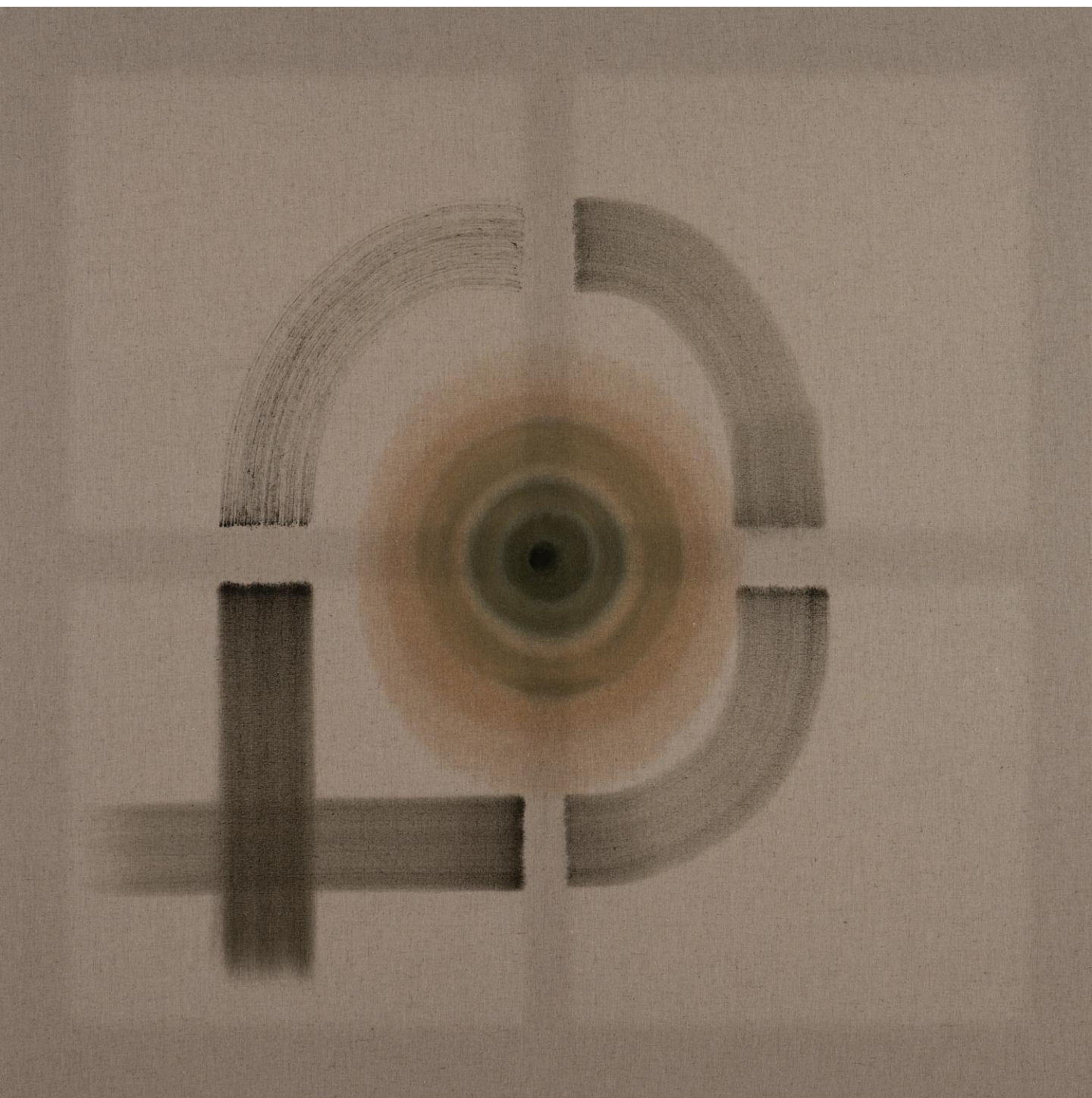
● 일기_200305_나를 잠식하는 바이러스, 2020, 면포에 유채, 52.9x4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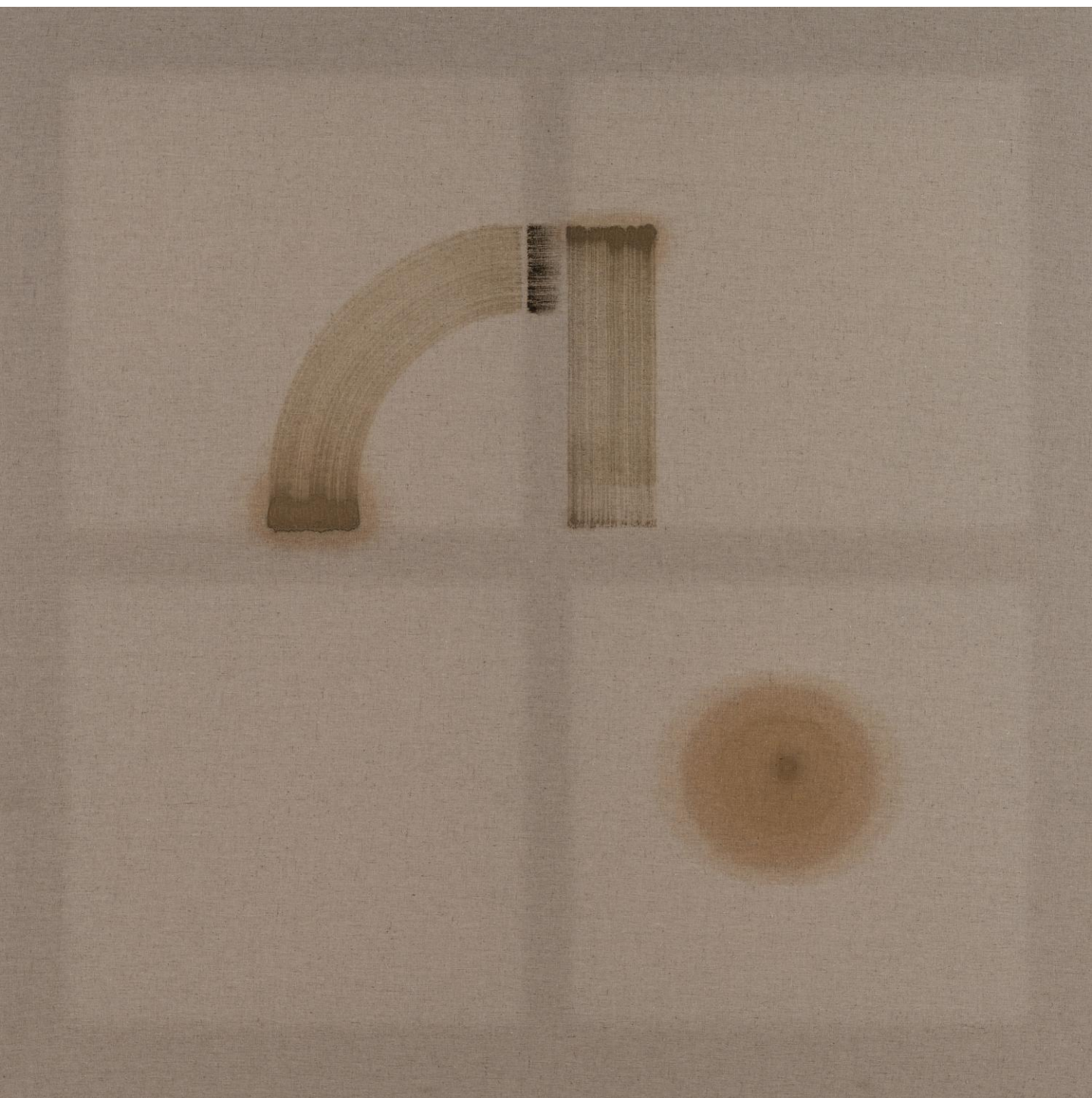
●일기_191102_좁고 깊은 터널, 2019, 캔버스에 유채, 162.3x11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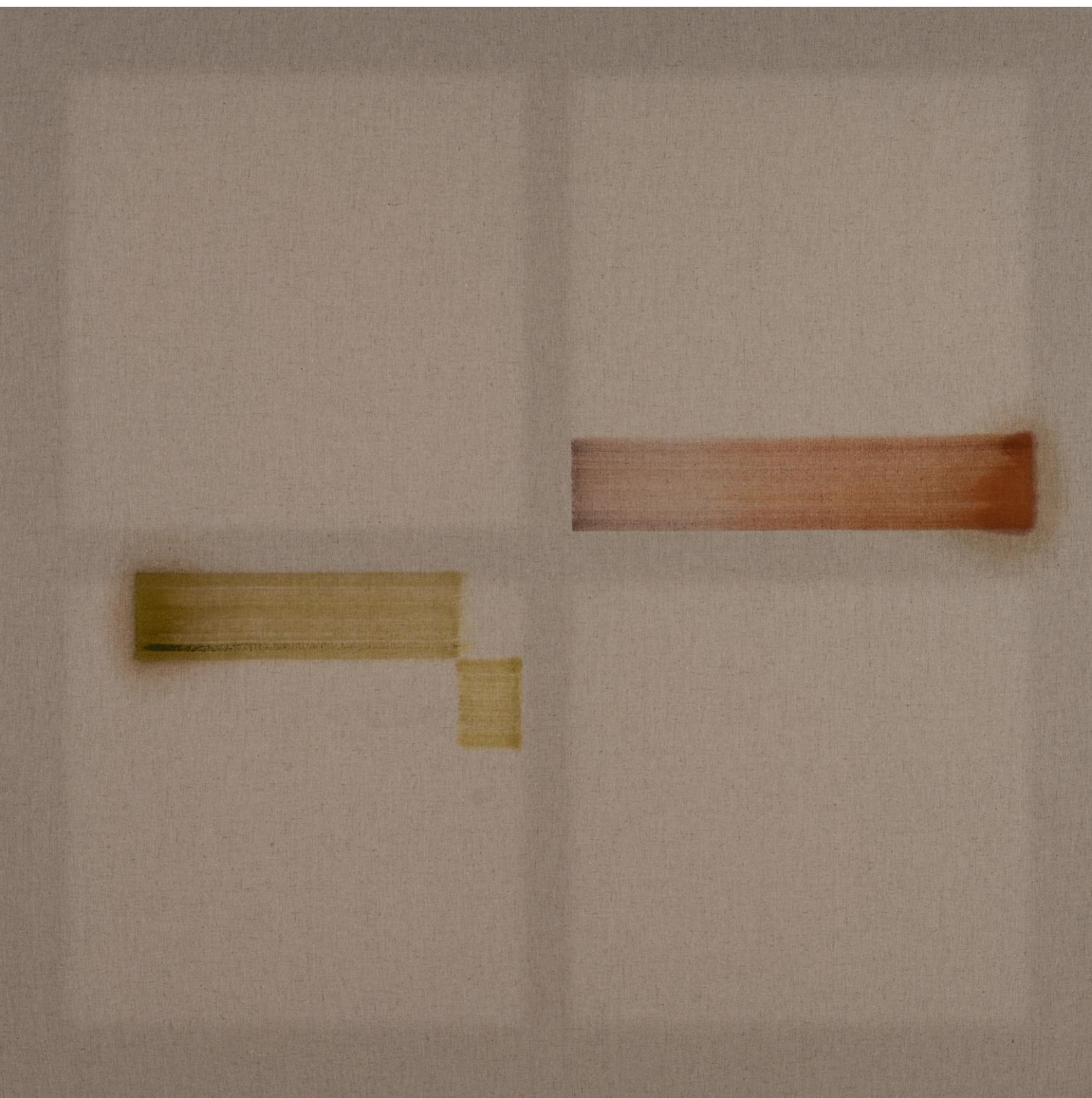




●진정으로 원하는 것_사랑, 2019, 마포에 유채, 90.7x9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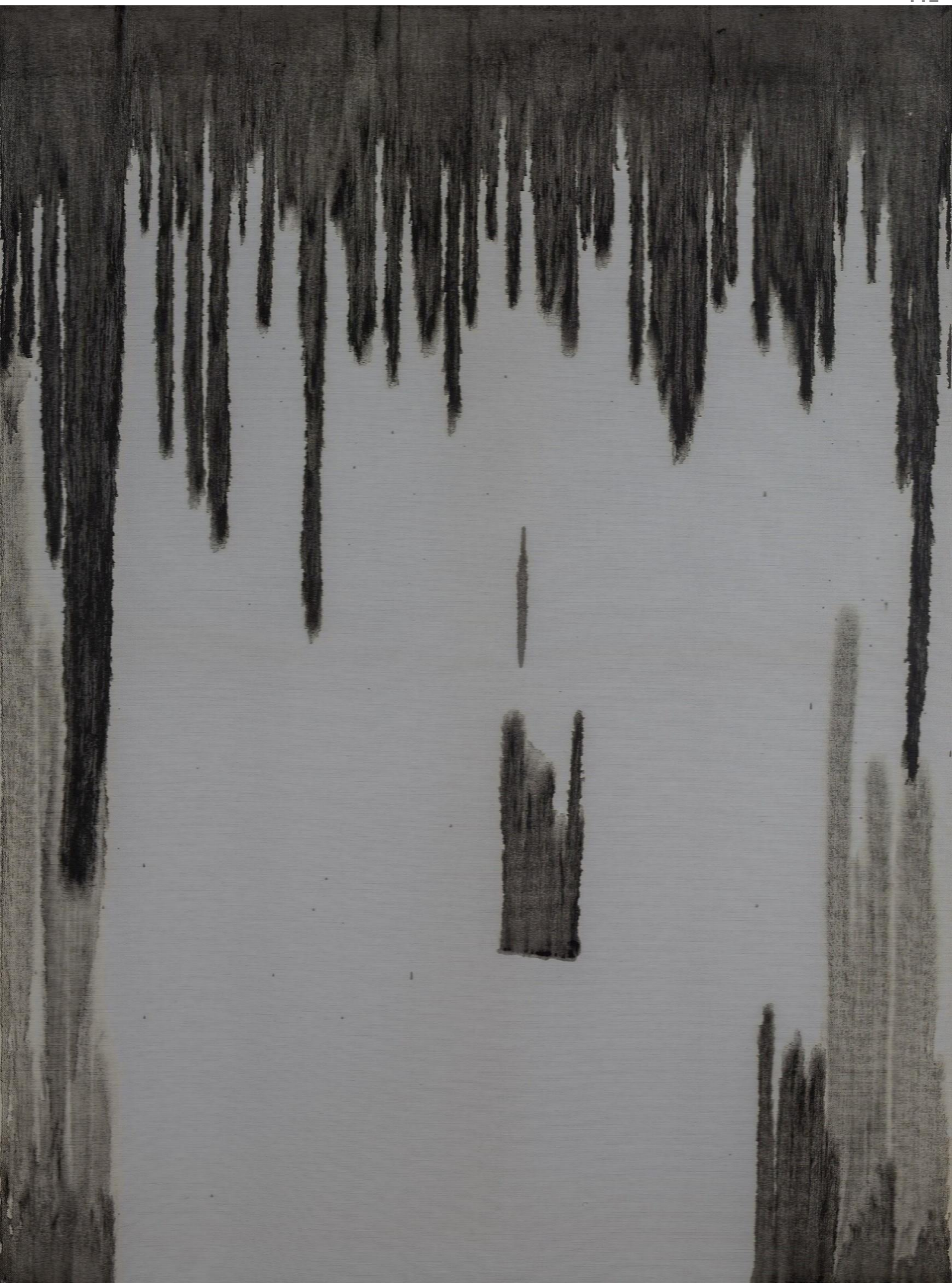
●진정으로 원하는 것_평화, 2019, 마포에 유채, 90.7x90.7cm





● 연결된, 2019, 캔버스에 유채, 97.1x145.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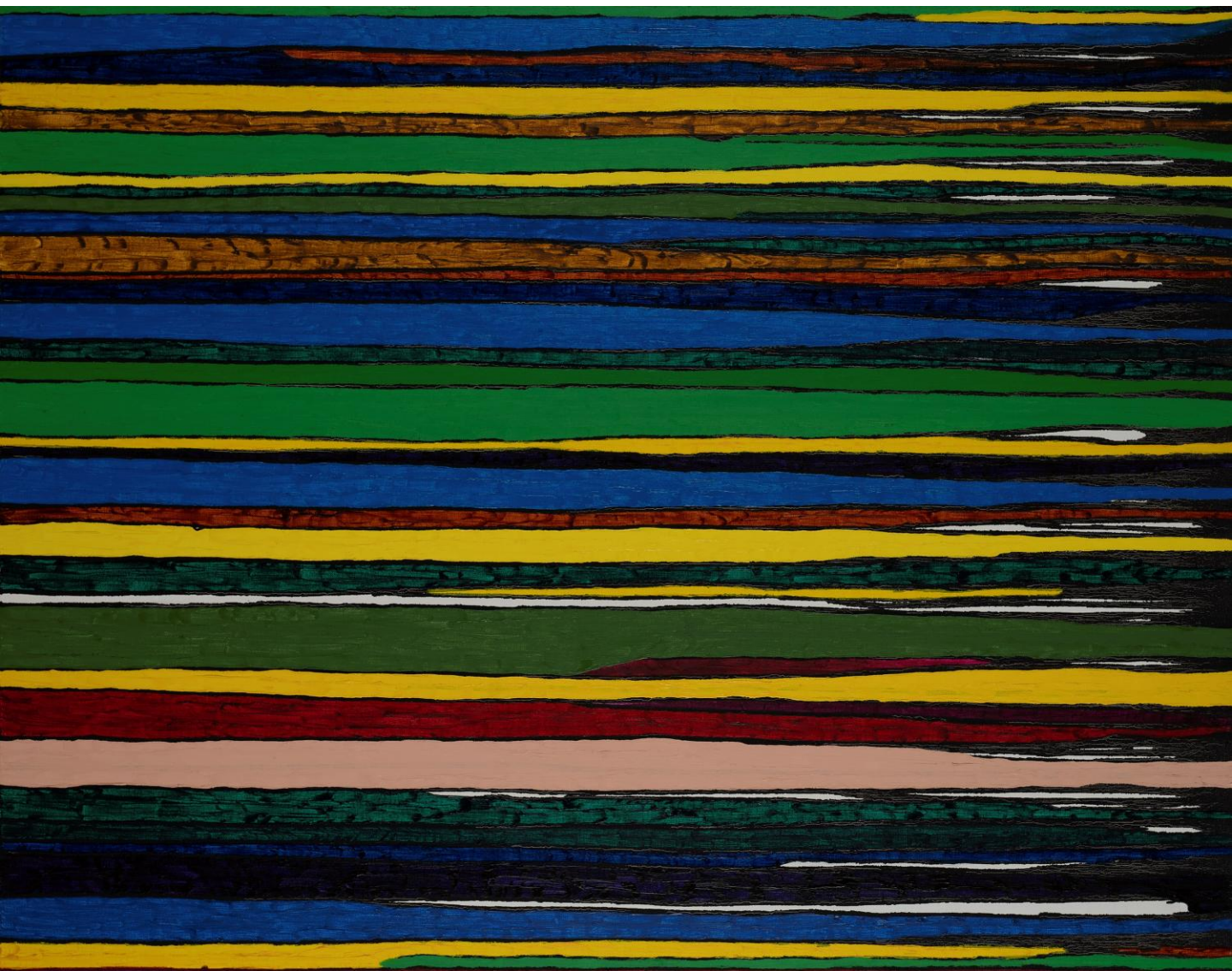








●단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의 아름다움, 2019, 캔버스에 유채와 오일스틱, 97.4x16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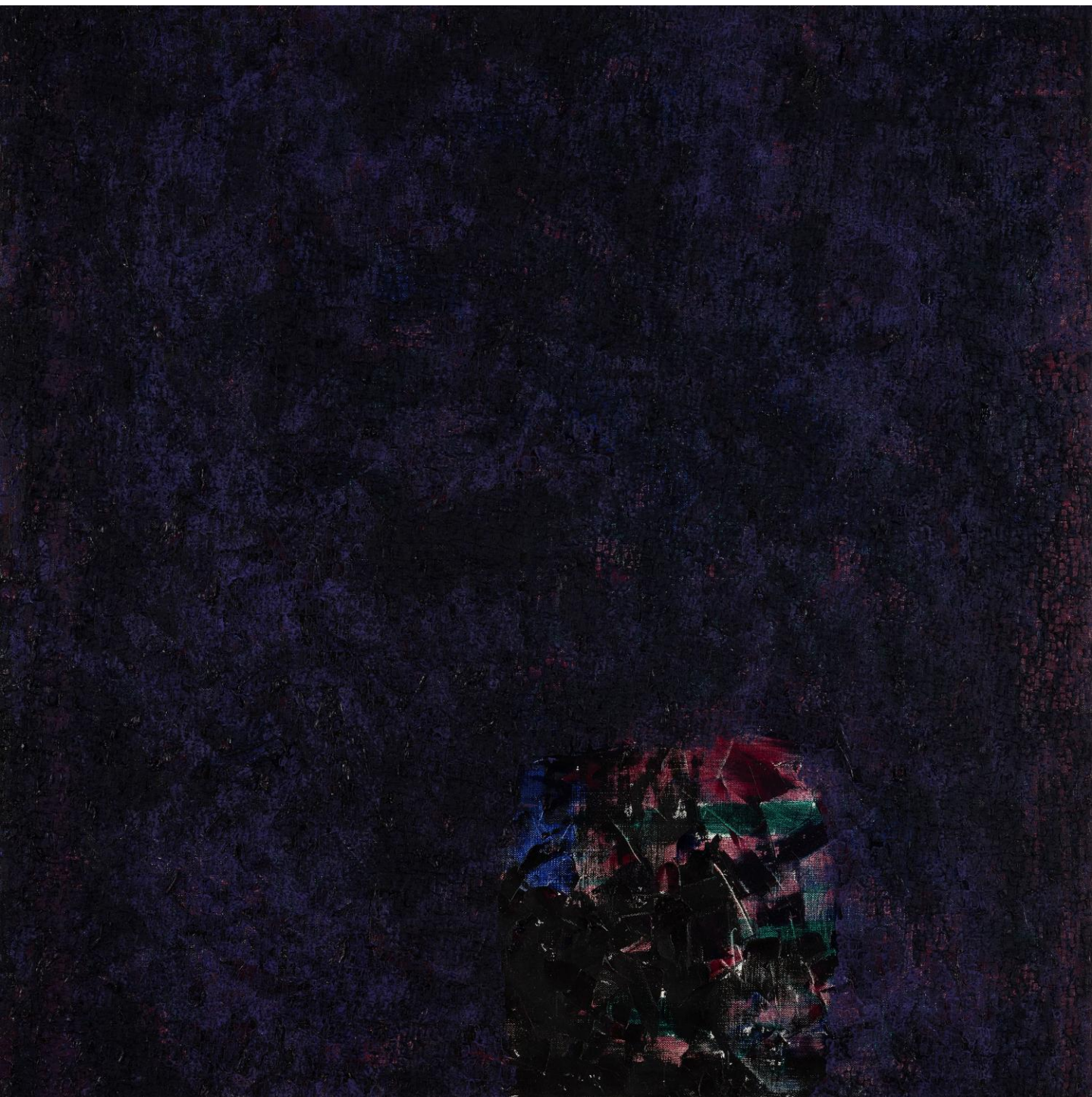


●단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의 아름다움, 2019, 캔버스에 유채와 오일스틱, 145.5x112.2cm



●단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의 아름다움, 2019,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한 캔버스 천, 117.3x9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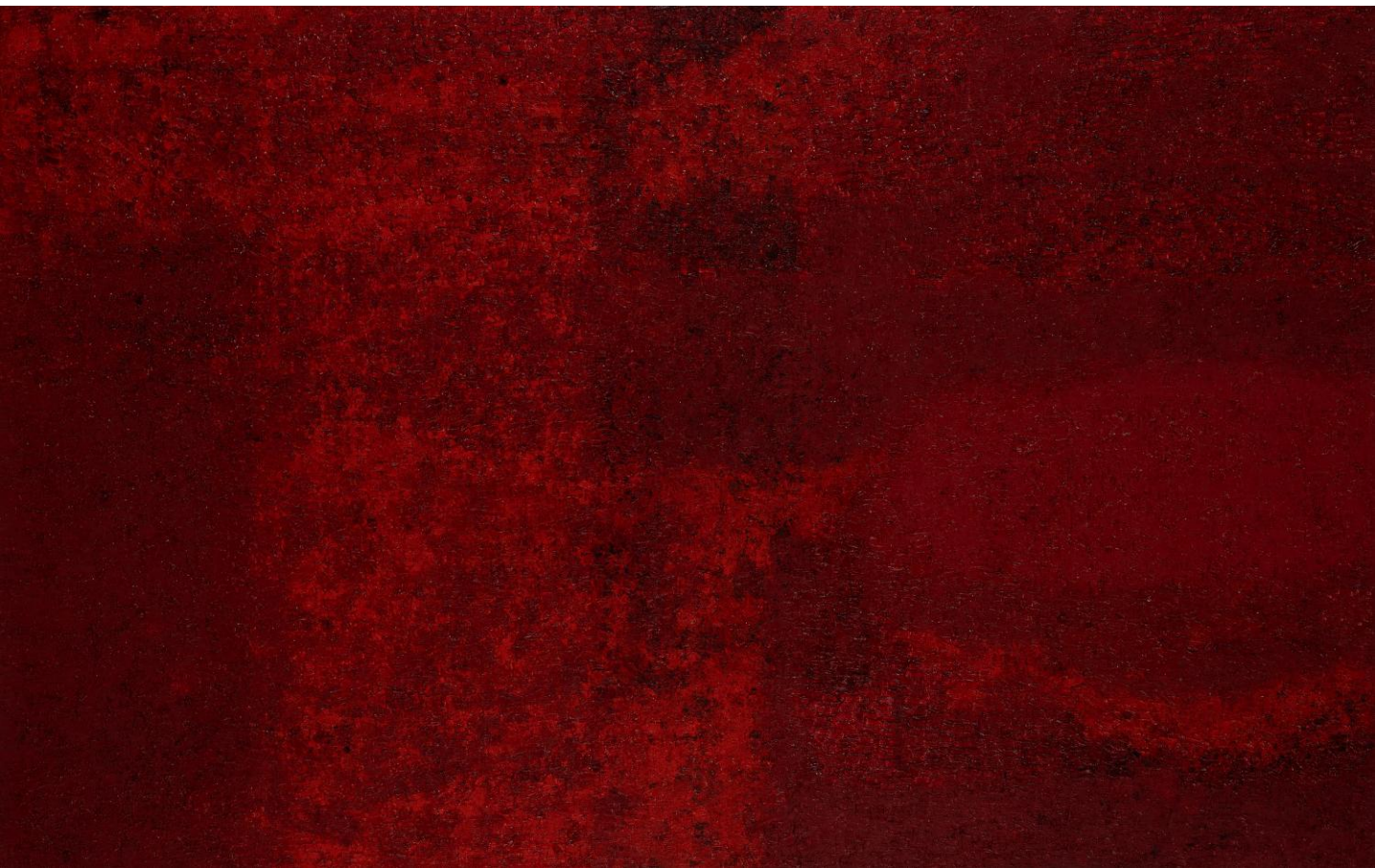
● 단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의 아름다움, 2019, 캔버스에 유채와 오일스틱, 80.6x80.6cm



● 단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의 아름다움, 2019, 캔버스에 유채와 오일스틱, 130.5x96.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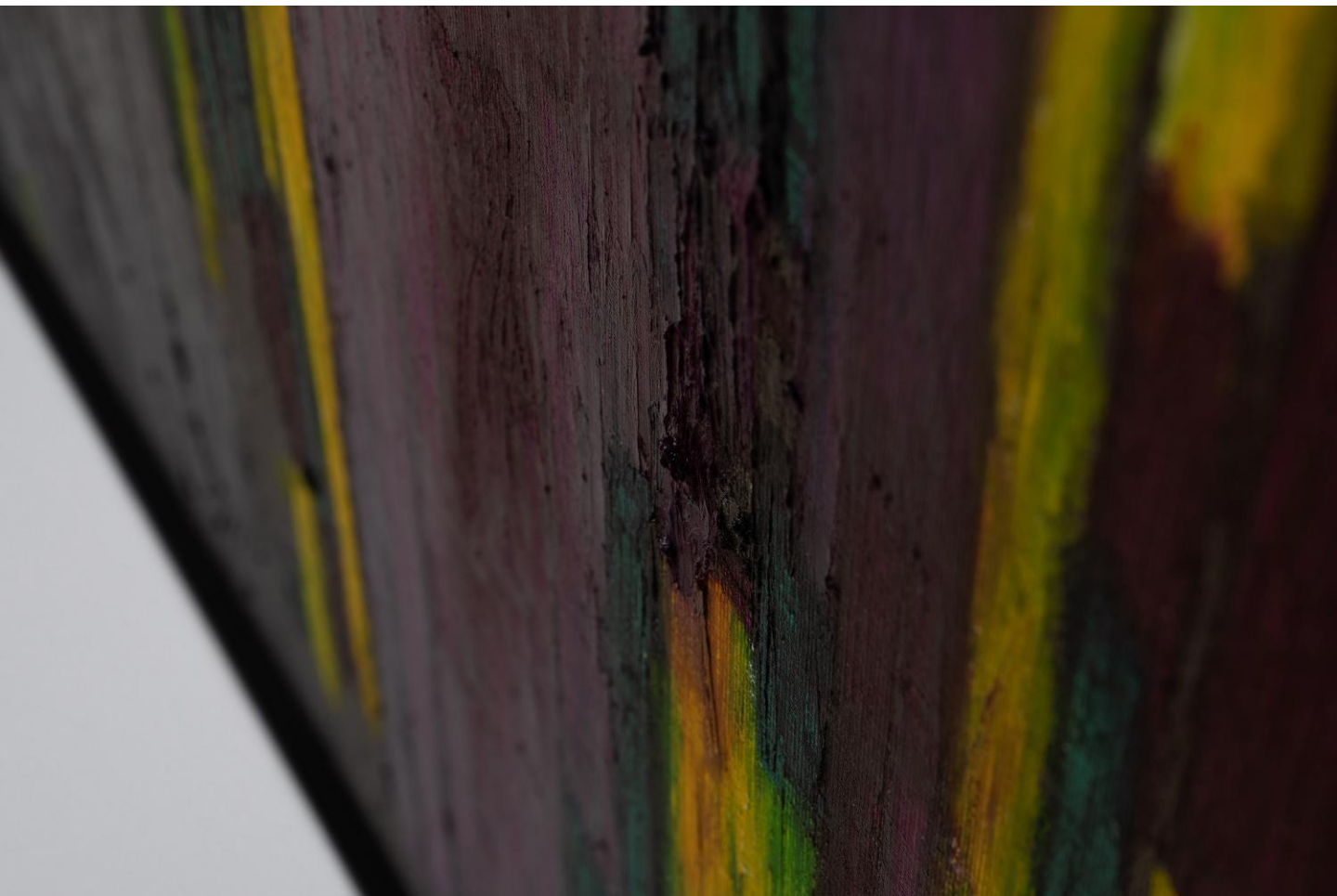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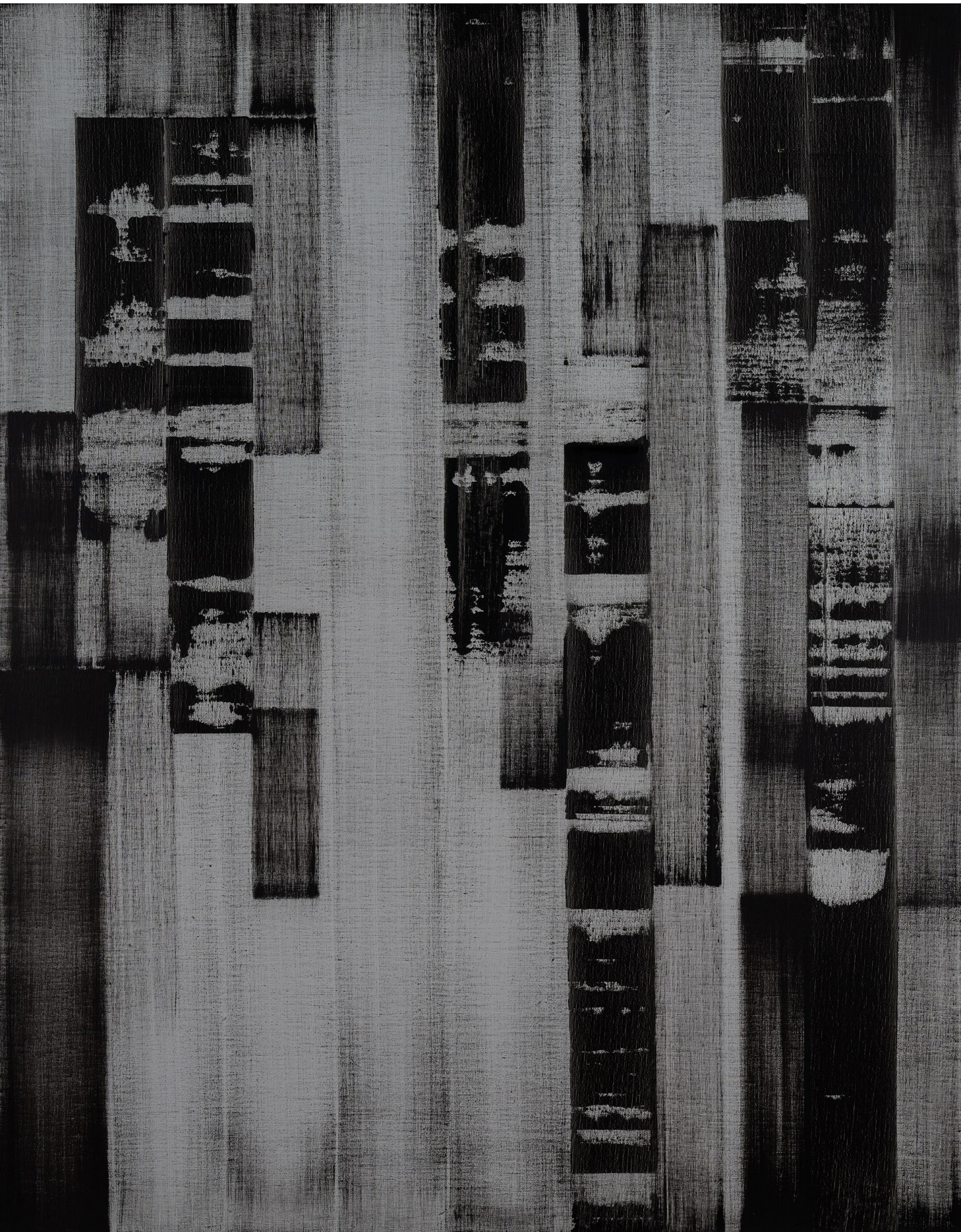
● 단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의 아름다움, 2019, 캔버스에 유채와 오일스틱, 145.5x96.9cm





● 단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의 아름다움, 2018, 캔버스에 유채와 오일스틱, 145.4x96.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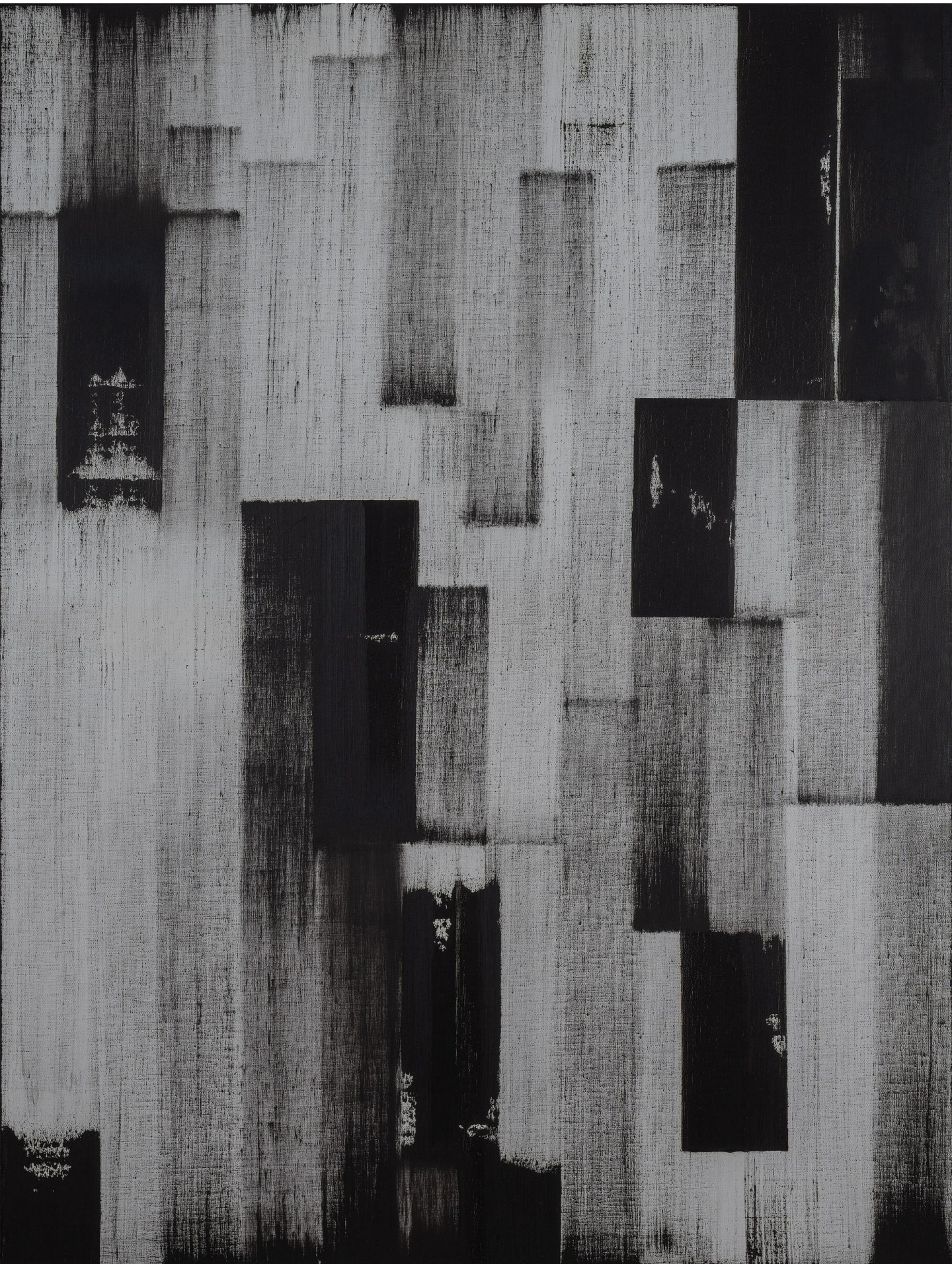
● IVB.SLB, 2018, 캔버스에 유채, 145.6x112.2cm



●IVB.SLB, 2018, 캔버스에 유채, 145.6x96.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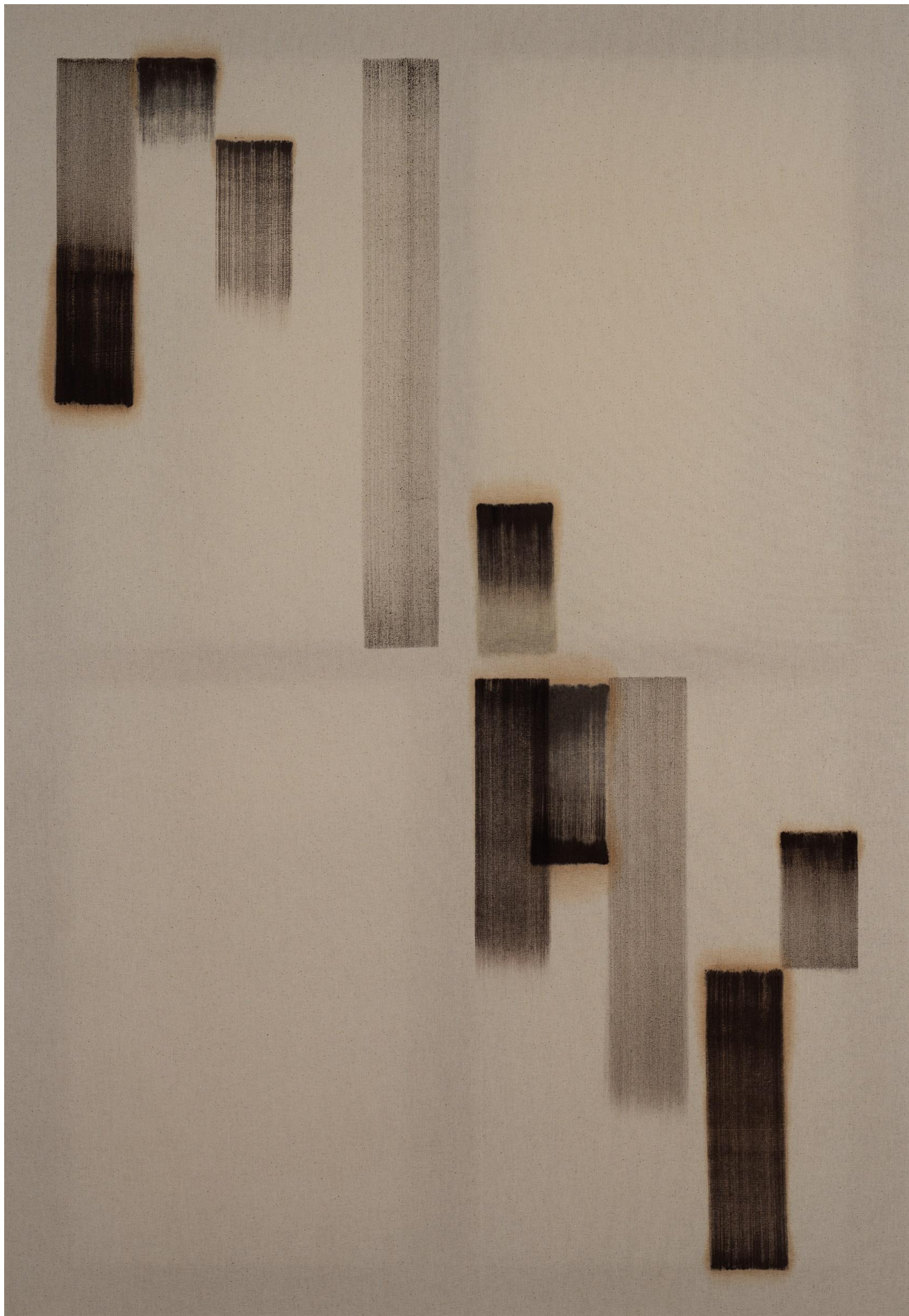


●GE.TU, 2018, 캔버스에 유채, 130.5x89.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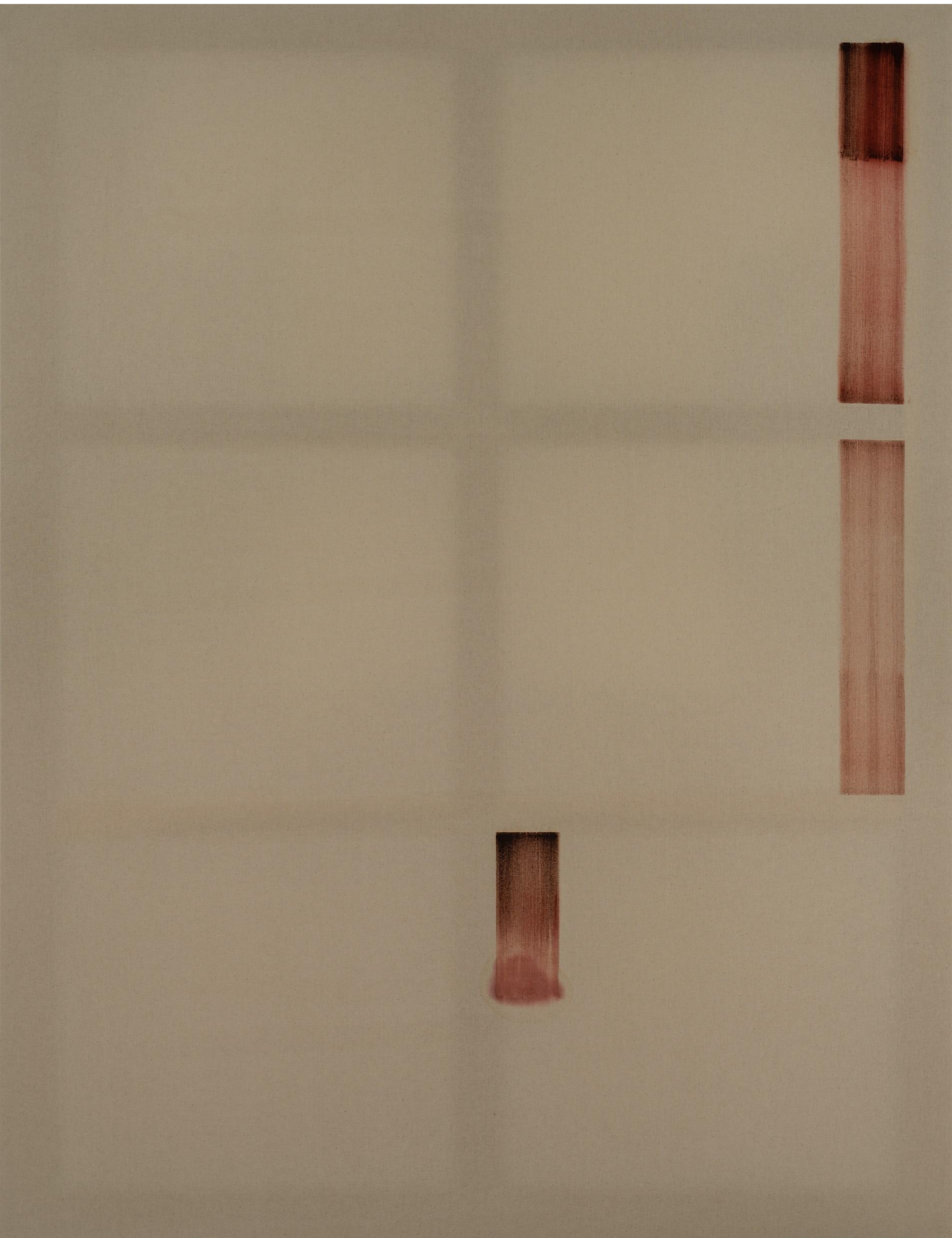


● IVB.SLB, 2018, 캔버스에 유채, 130.4x96.8cm





● PGV, 2018, 면포에 유채, 130.1x89.3cm





●QGB.AC.IVB, 2018, 캔버스에 유채, 145.5x112cm



●고립됨, 갇힌 느낌, 답답함, 2018, 마포에 유채, 72.7x7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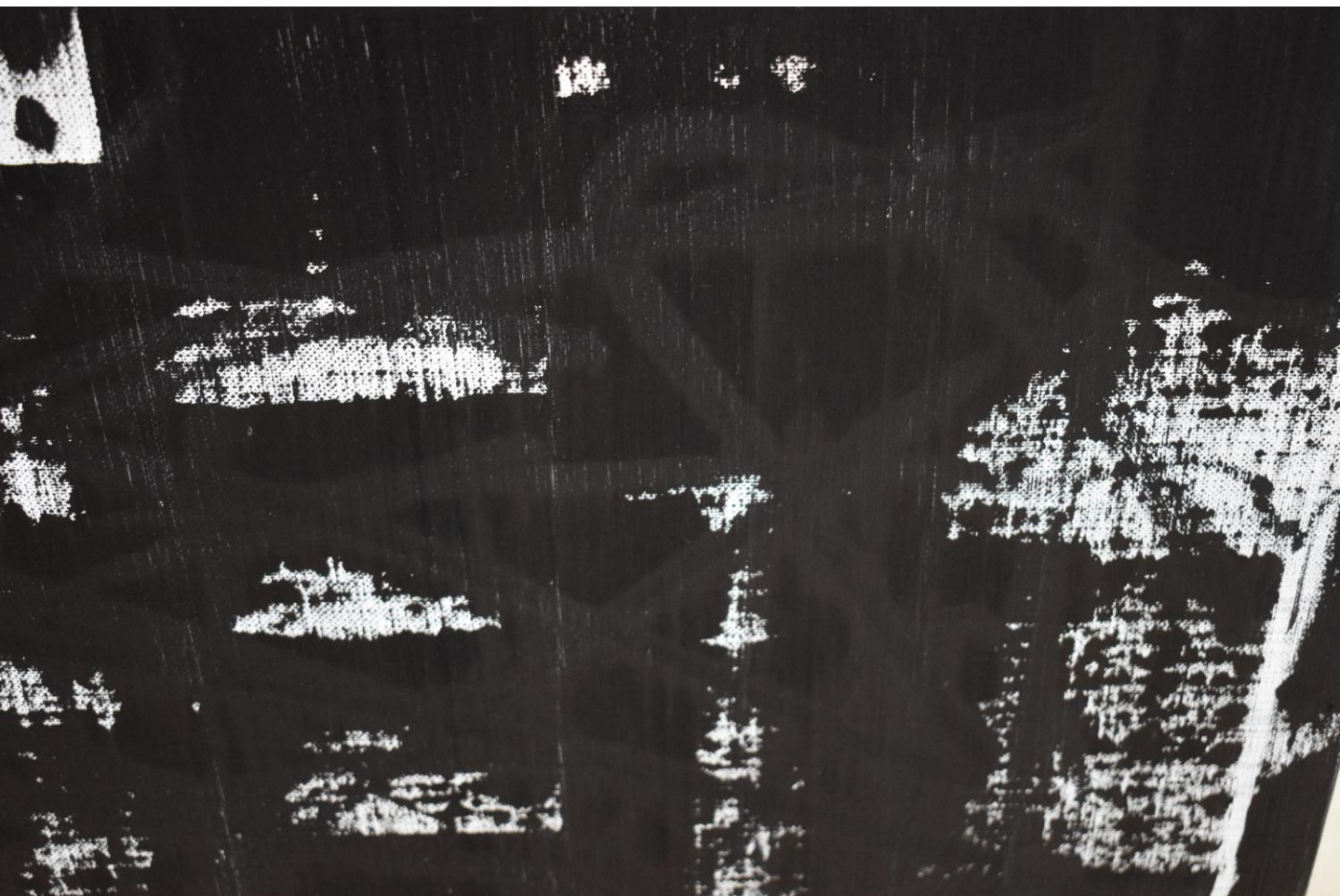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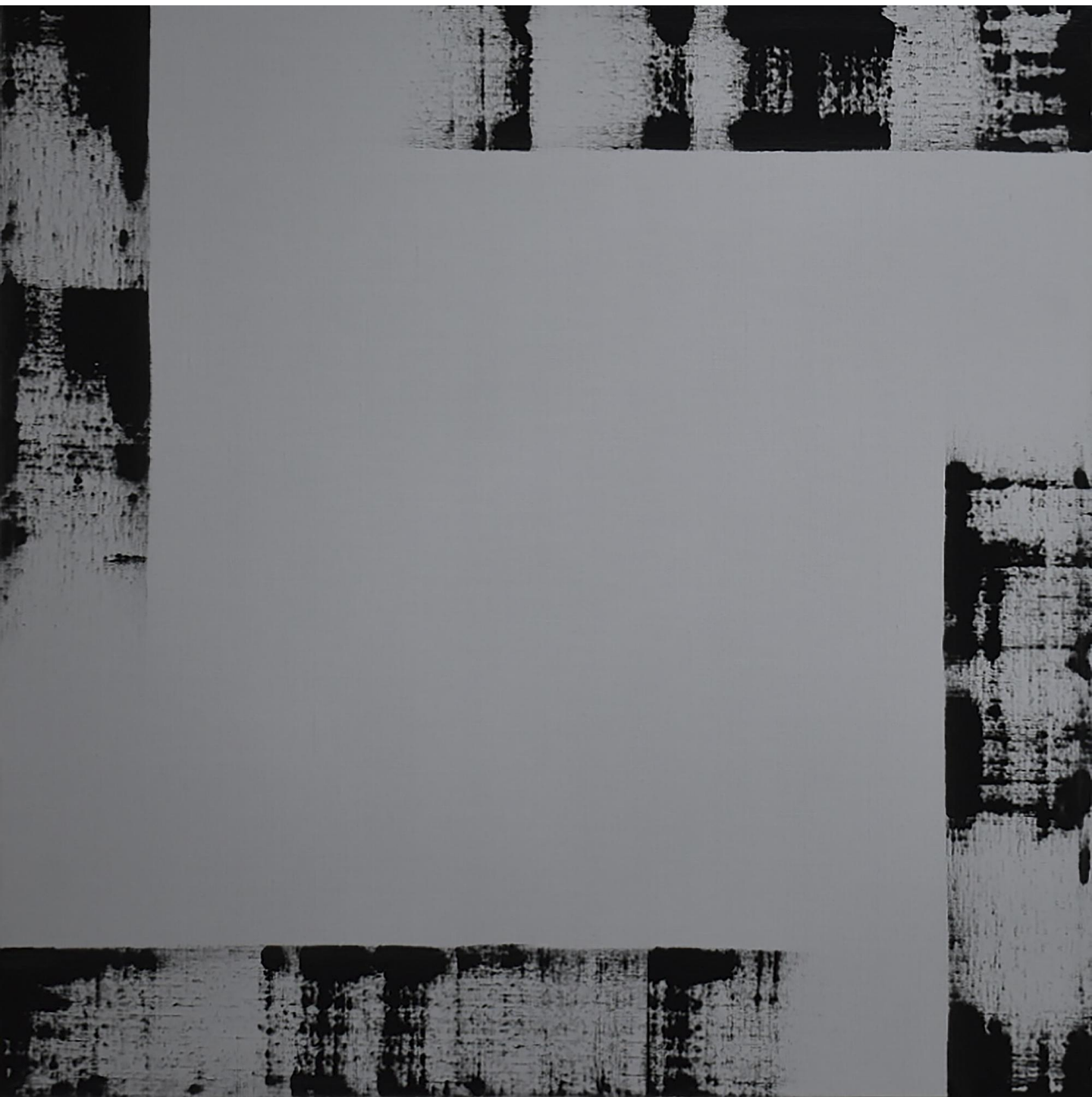
●우울, 절망, 불안정, 2018, 캔버스에 유채와 오일스틱, 72.9x72.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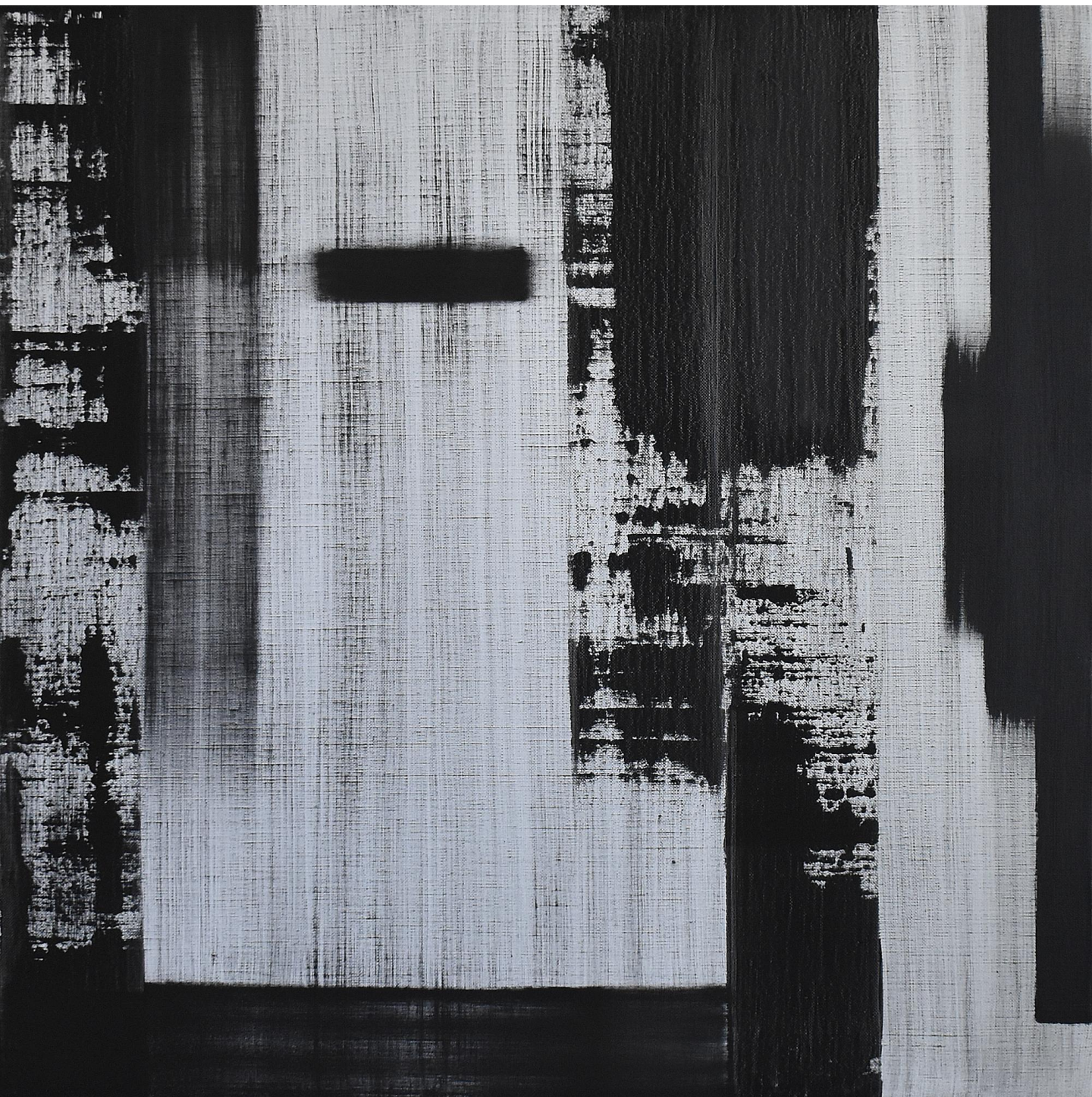


● 할퀴고 간 자리, 2018, 캔버스에 유채와 오일스틱, 72.9x72.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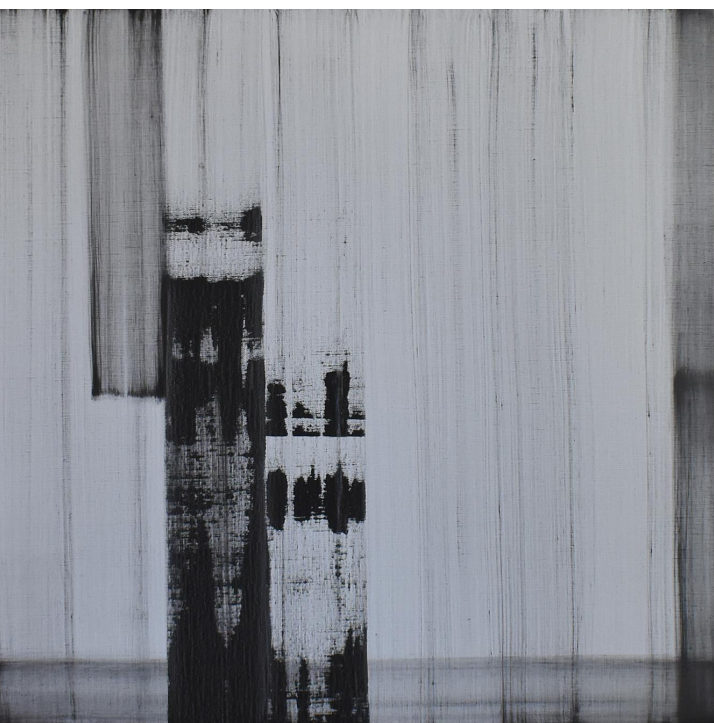
● 집착, 2017, 캔버스에 유채, 72.7x7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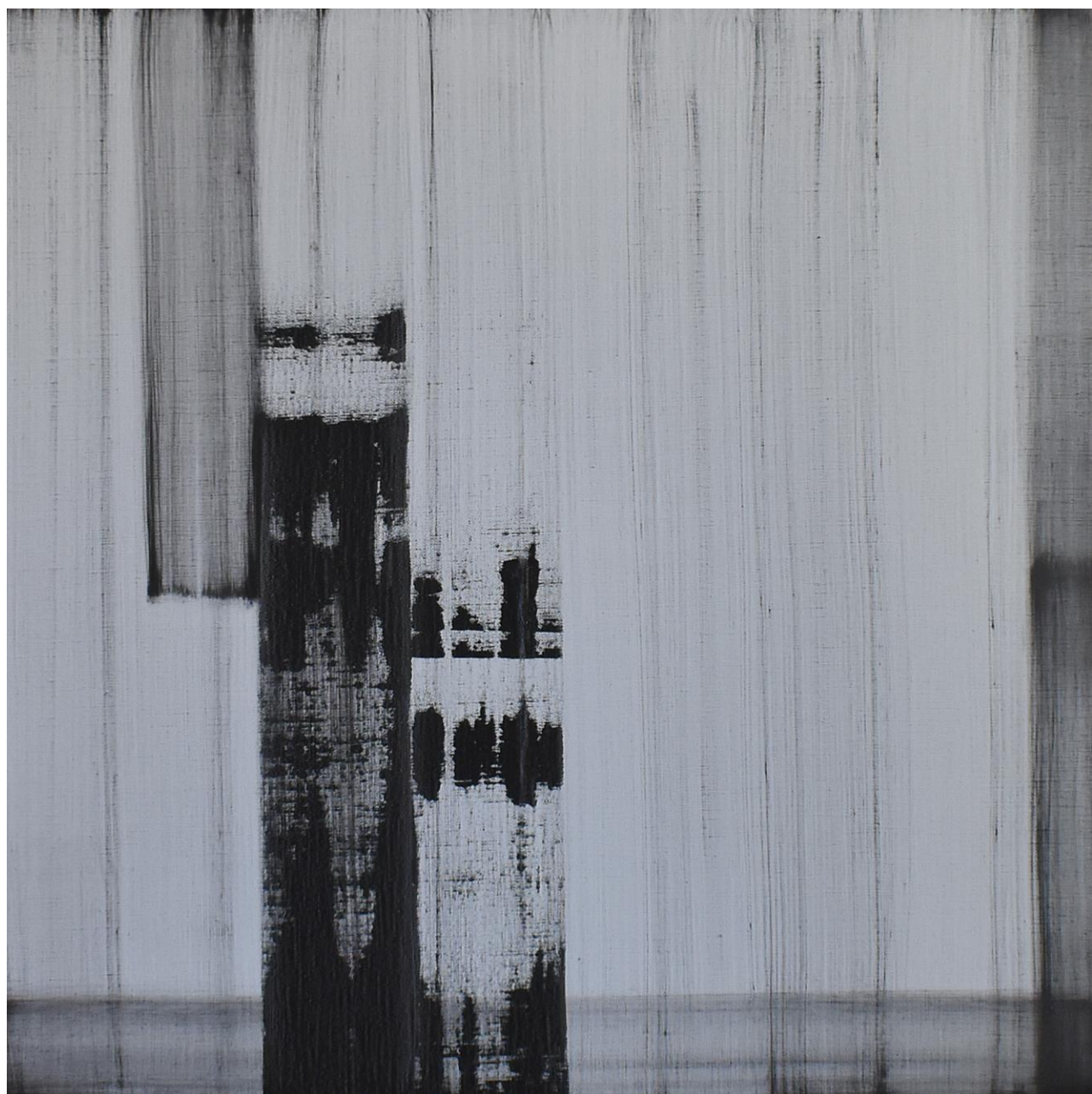


●불안, 두려움, 2017, 캔버스에 유채, 72.8x72.8cm



● 위태로움, 희망, 2017, 캔버스에 유채와 오일스틱, 72.8x72.8cm















● 몰입과 분산, 2017, 모시에 유채, 90.9x90.9cm



● 물입과 분산, 2017, 나무판에 유채, 72.5x7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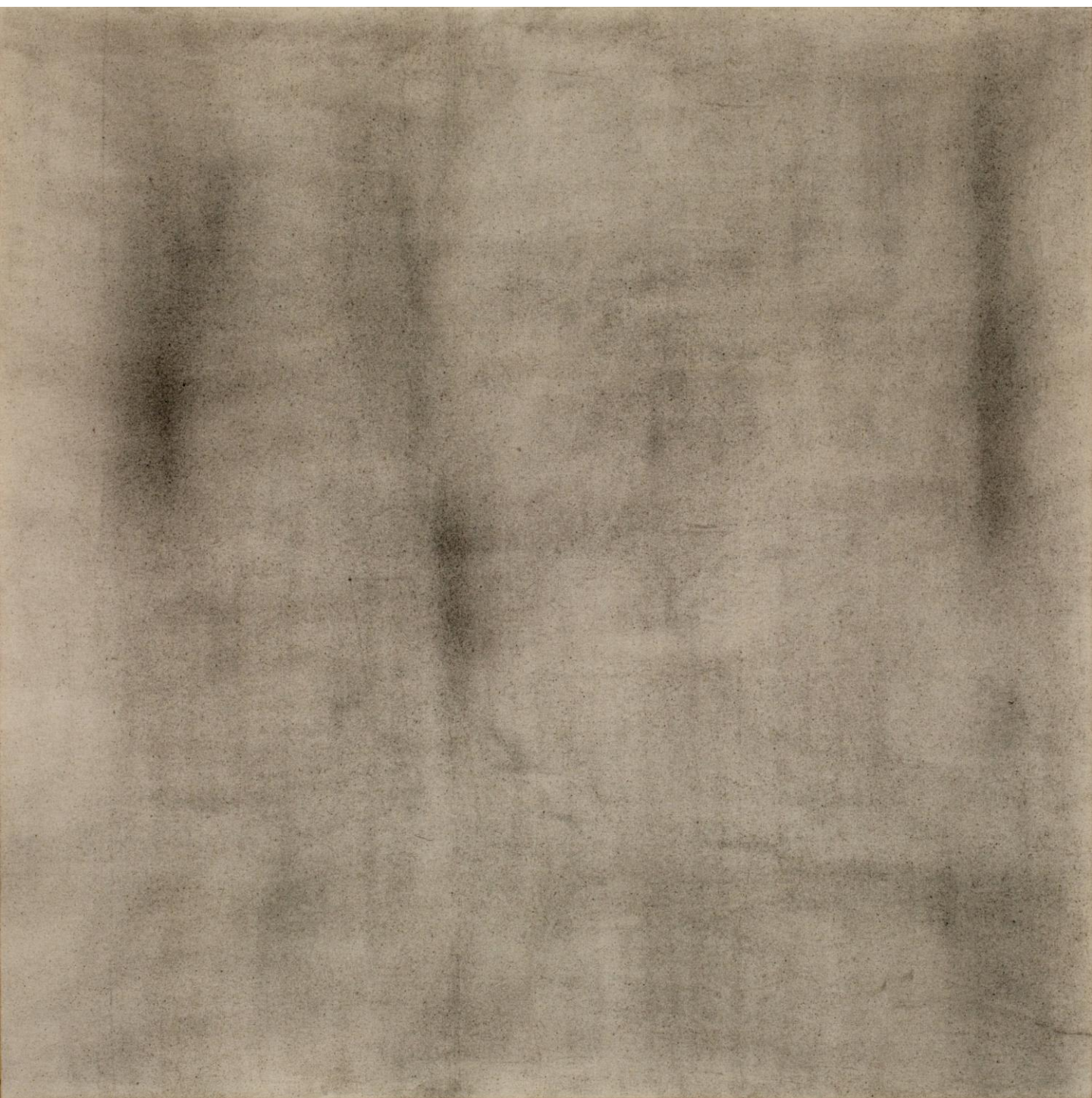
●수용에 기반한, 2017, 마포에 콩테, 116.5x90.5cm



●수용에 기반한, 2017, 마포에 오일스틱, 116x72.5cm



●수용에 기반한, 2017, 마포에 콩테, 80x1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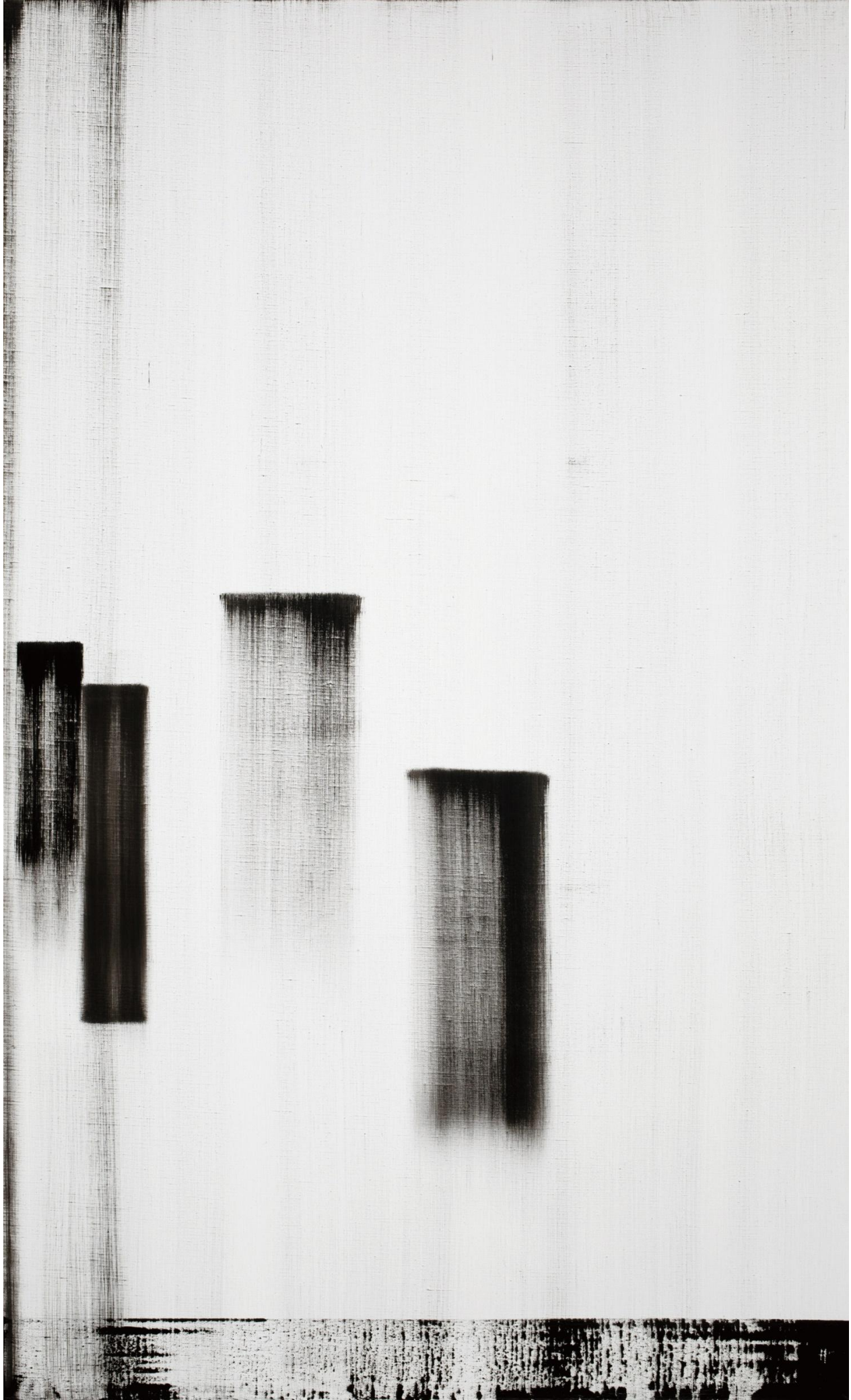
●몰입과 분산, 2017, 캔버스에 유채, 145x96.5cm



●몰입과 분산, 2017, 캔버스에 유채와 모래, 129x19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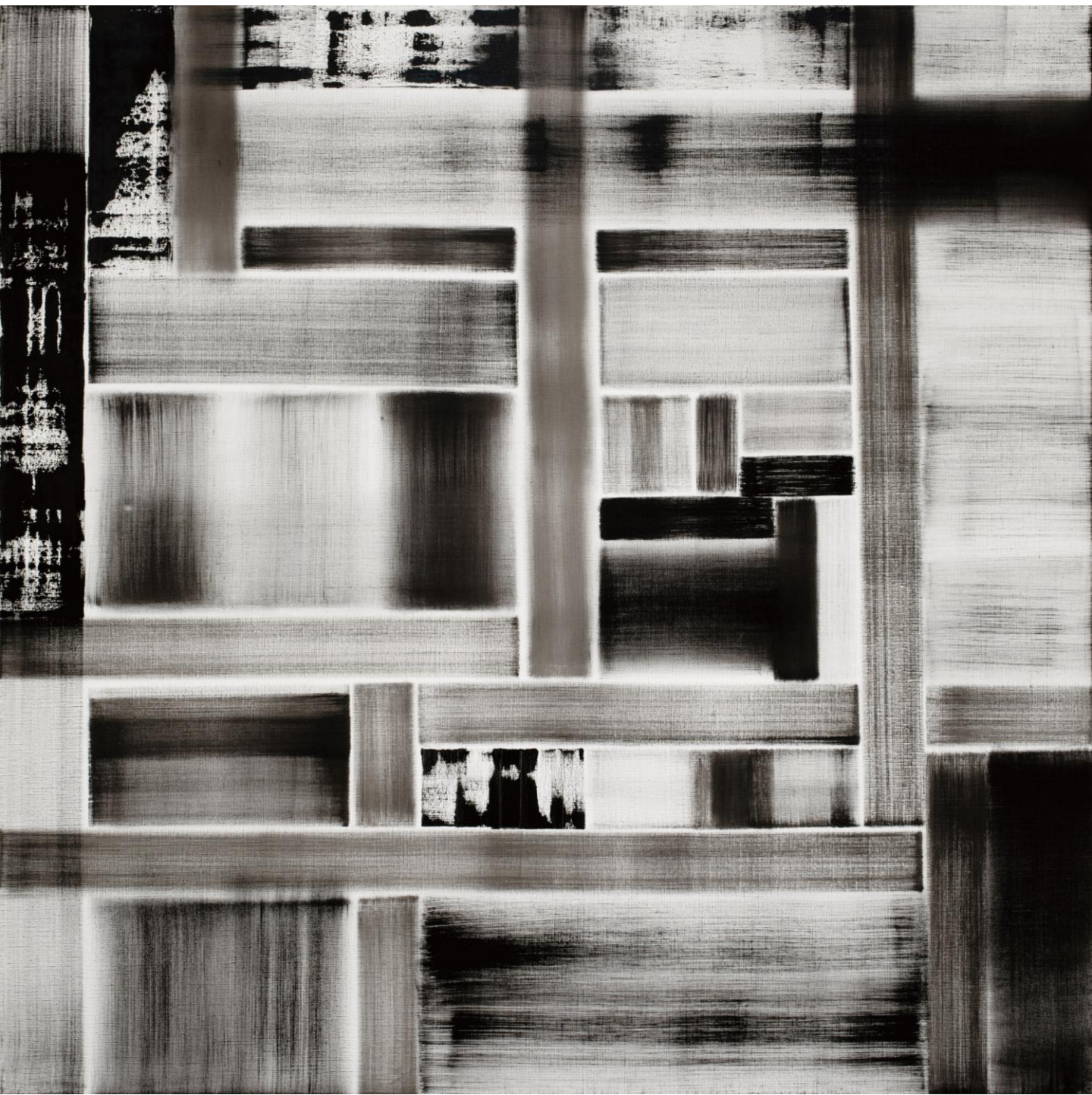




●몰입과 분산, 2017, 캔버스에 유채, 145x89cm



● 몰입과 분산, 2017, 캔버스에 유채, 90.5x90.5cm



● 몰입과 분산, 2017, 캔버스에 유채, 129.5x12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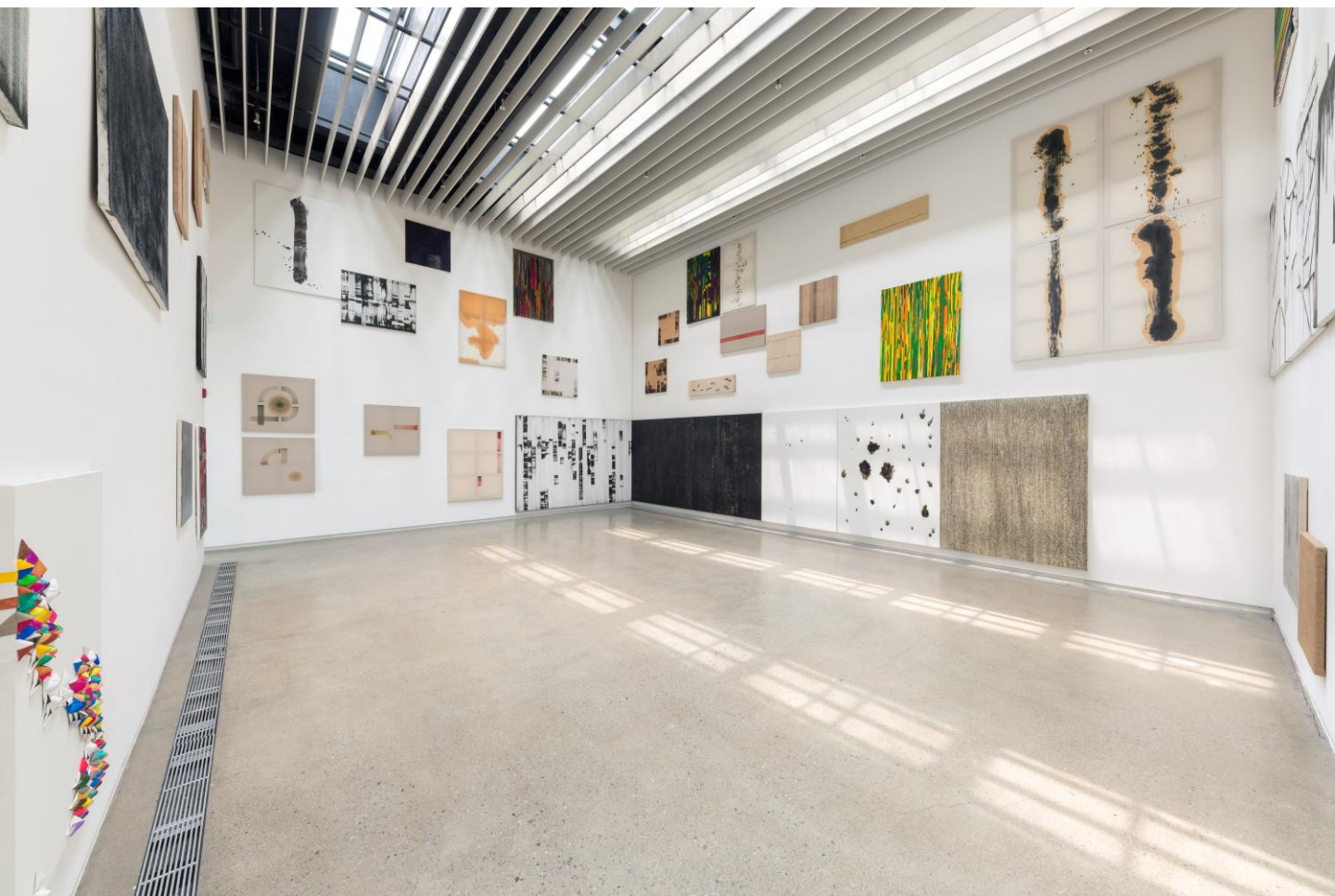


●물입과 분산, 2016, 캔버스에 유채, 97x130cm



●몰입과 분산, 2016, 캔버스에 유채, 130x89cm

뼈를 통과하는 창,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한국,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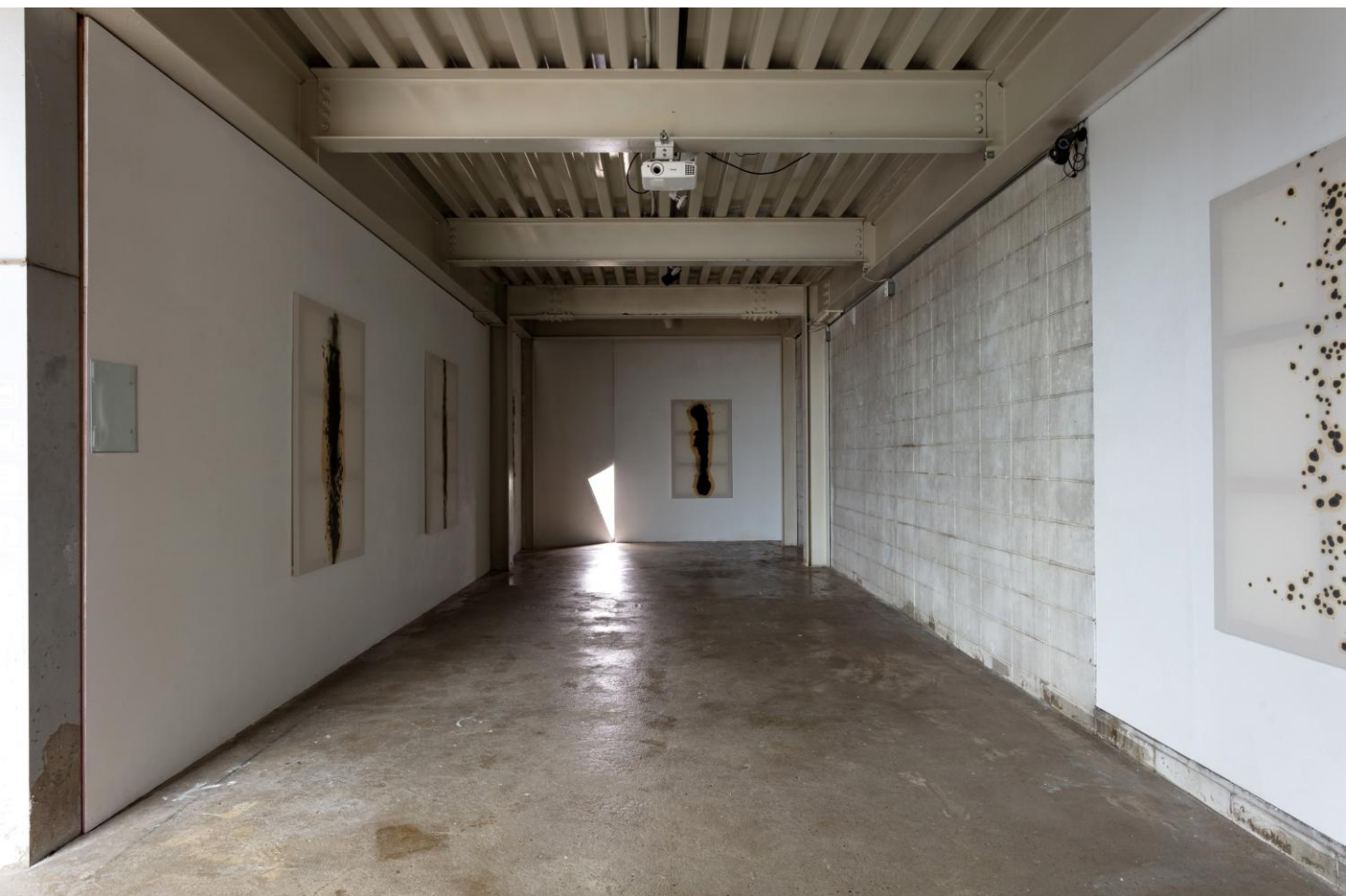






관찰하기: 좁고 깊은 터널, CICA 미술관, 김포, 한국, 2020







감싸안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한국, 2020







알아차림의 체험,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8

